

할렐루야,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죄악과 세상의 압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 주시며 눈물의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사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Z세대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부흥의 움직임? 깨어나는 세대, 젊은이들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나는 부흥에 관한 팀 켈러의 정의를 좋아한다. "부흥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강화한 것으로, 주로 설교, 목회, 예배, 기도와 같이 '이미 정해진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정의는 부흥이 취할 수 있는 형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을 만큼 폭넓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좁혀 부흥의 징조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일컫는 Z세대, 그 중에서도 대학생 사이에서 부흥의 시작을 보고 있는가? 그들의 풍경을 조사하던 나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소망과 갱신의 징조를 목격했다.



팅팅 사원이 제공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한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바로 그 무엇에 굶주린 상태이다. 여러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를 만나거나 교회 또는 대학을 방문할 때 나는 이러한 영적 굶주림의 징조를 목격한다. 2023년 에즈베리 각 성은 큰 뉴스 기사였다. 평범한 예배당이 찬양과 예배, 죄의 고백, 구원의 축가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예배로 바뀌면서 전국의 주목을 받았고,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영적 강렬함이 일어났다. 나는 에즈베리가 던지는 질문을 숙고했고, 에즈베리 신학대학 총장 티모시 테넬트가 현명하게도 그 각성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데에 주저한다는 점을 알아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무사태평한 교회

의 기초는 흔들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진짜로 더 새롭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지속적인 변화가 확실한 경우에만, 시간이 흐른 뒤 뒤를 돌아보며 '예, 그것은 부흥이었습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나는 The Salt Company와 제휴한 두 교회, 플로리다 텔러해시의 시티교회(City Church)와 아이오와 에임스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Cornerstone Church)에서 강연했다. 두 교회 모두 열정적

이고 영적으로 굶주렸으며 선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가득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위해 불타오른다"라는 말이 흔했다. 사실 코너스톤 교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비극을 겪었다. 2022년에 두 명의 젊은 여성이 목요일 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총에 맞아 사망했다. 말 그대로 교회는 슬픔의 계절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역사하셨고, 전도의 열매까지 맺게 하셨다. (3면으로 계속)

깨어나는 세대?

작년 말 카일 리히터와 패트릭 밀러가 놀라운 보고를 했다. 자신들이 맡은 지역 대학생들의 새로운 관심과 열정에 대한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영적 불길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이 세대가 영적 쇠신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믿는다. Z세대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 지난 삼 년 동안의 혼란스러운 상황(글로벌 팬데믹, 수많은 대량 총격 사건, 인종과 차별 전쟁, 치열한 선거, 급속한 인플레이션, 광범위한 학대 스캔들)은 정체성, 목적, 소속감이라는 면에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세속주의, 소비주의,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의 말라버린



시론 이동진 목사



목회단상 손기성 목사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너 조연이어"



박공서 목사 (새부천 교회 담임, 광야생활연구소 소장)

애굽의 노예 생활한 지 어언36년 일제 치하의 굴욕이로다 구절초의 쓴맛이 온 국토에 배였구나 탈탈 털리고 온몸에 구타당한 강도만난 사람 같구나 사마리아 사람 같은 미국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져 회생하는구나

오호 통재라 반만년 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도다 소련 치하의 북한은 김일성이 신이 되어 흑암의 동토가 되나 미국 치하의 남한은 기독교국론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에덴낙원이 되도다

모세같은 한사람 이승만이 나타나 하나님의 왕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외치는구나 광야에 나온 너 대한민족이여 쓴 나물을 먹으며 애굽의 노예생활을 기억하라

815는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이로다 이제 너에게 영원한 두길 만이 있으리니 하나님과 단절한 선악과의 넓은 길과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과의 좁은 길이로다

일제의 탄압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의 전적은혜임을 어찌 잊을손가 몇몇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희생했으나 바로같은 일본의 거대한 세력 앞엔 무용지물이라 장자사망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일본을 치니 곧 원자폭탄의 재앙이라 이로 인해 신이라 자고하던 일본천황이 무릎을 꿇으니 백의민족이 역암의 착고에서 풀리리다 광복은 단순한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의 기반이자 실질적 원리로다

광복의 기적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업임이 증명됨이니 이제, 그를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면 찬연하게 떠오르는 동방의 태양빛이 되리리다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4 학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250여명의 목사 회원과 31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신학교인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4 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 신학사 과정(B.Th): 고졸자
- 기독교교육학석사 과정(M.C.E.): 대졸자
- 목회학석사 과정(M.Div): 대졸자
-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특전

- 본교의 M.Div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는 50%의 장학금을 지급함

2024학년도 가을학기

기간: 2024년 8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 개강 예배

- 일시: 2024년 8월 26일 (월) 오후 7시 (서부시간)
- Zoom ID #: 202 901 1366

(2) 개설 과목

Date (7-9:30pm)	Course Name 과목명	Prof 담당교수
Monday (월)	Church School Ministry (교회학교 사역)	김선중교수 Ph.D
Tuesday (화)	Biblical Hebrew I (히브리어 I)	김동진교수 Th.D
Wednesday (수)	Pauline Epistles (바울서신)	정인재교수 Ph.D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박사 과정 안내

California BPPE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 목회학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및 선교사
- 졸업 학점: 48 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2. 신학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혹은 신학석사 (Th. M) 학위 소유자
- 전공 분야: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일(입학시)
- 졸업 학점: 60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 학비: 학점당 150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 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0577, 626-675-8010

시론

여행의 시간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여행의 시간'이란 제목은 너무나 답답하다. 참 여행은 떠나는 것, 누리는 것인데 그 발걸음마저 시간이라는 틀 속에 넣어버린다면 그 여행은 이미 자유를 뺏기고 묶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은 선택을 해야 했다. '여행'이나 '시간'이나?

기독교신앙은 여행이다. 그런데 시간이 소모되는 여행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여행이다. 참 여행. 멀리 온 우주만물 태초의 시간을 둘러볼 수 있고, 저 멀리 오고있는 그 날(The day)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의 날도 미리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신앙은 시간을 초월한 여행, 영원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단(KAPC) 총회가 기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총회가 미국 동부, 서부, 중부 등 각 지역을 돌아가며 개최하기 때문에 총회를 참석하면서 가보지 못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에만 해도 총회 덕분에 서부에 살면서 뉴욕여행을 할 수 있었고, 시카고 여행도 할 수 있었다. 올 봄에는 가까이지만 자주 갈 기회가 없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10년만에 방문할 수 있었다. 이런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세계적인 도시인 맨하탄이나 노아의 방주, 창조박물관, 금문교를 방문함으로써 시간을 넘어선 초월여행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시간초월여행으로 인도해가는 것이 목회자 아닐까 생각해본다. 최근, 성경공부 교재로 펼쳤던 창세기 여행과 요한계시록 여행도 그랬지만 요즘 함께 배워가고 있는 출애굽기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또 새로운 감동은 분명히 멋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여행은 소그룹이든 몇 십명 그룹여행이든 인도자에 따라 그 질이 많이 좌우된다고 한다. 어느 장소에 왔다가는 기록남기에 집중하는 인도자와 함께 하는 여행은 주변 경치나 그 곳이 가진 의미는 안중에 없고 그야말로 여행사 깃발만 따라다니는 기념사진 몇 장 촬영한 것 밖에는 남는게 없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시간 맞춰 끌고다니는(?) 스케줄 때문에 피곤한 허품소리만 가득한 경우도 경험하곤 한다.

여행은 인도자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여행의 감동은 무엇보다도 여행자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기도 하다. 무엇을 보아도 시큰둥하거나 불평으로 참여하는 여행객에게는 그 어떤 탁월한 인도자 그룹과 함께 하는 여행일지라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풀 한 포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결 하나에도 "오~", "wow~" 감탄이 넘쳐나온다면 그 여행은 얼마나 행복한가!

신앙생활, 감탄이 없는 여행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여행 인도자와 같은 역할의 교회리더들이 보여주는 낮은 수준의 문제들,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여행객 같은 평신도(?)들이 던지는 문제들. 그 문제와 씨름하다 여지없이 한판 패로 끝나곤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이슈들은 시간에 따라 솟아나왔다가 흘러가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흐름 속에 빠져버리는 신앙이다. 허우적대며 산다. 기독교신앙이 겨우 그 정도라면 성경을 관통하는 구약사와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들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취사선택(取舍選擇)이란 단어에는 지혜를 요구하는 뜻이 담겨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마땅히 붙잡아야 한다. 시간은 붙잡아 두고자하는 욕심 안에 머문다. 그러나, 여행은 벗어나는 자유와 연결되는 의미의 단어이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많다. 그러나 교회문제에 빠지지 말고, 여행을 나서기를 바란다. 태초의 창세기부터 마지막날의 요한계시록까지 여행을 떠나보라. 한여름 더위일지라도 시간을 초월한 영원여행에 올라서면 하루가 감탄사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djlee7777@gmail.com

영적 질병에 대한 바빙크의 복합 진단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기관을 통해 조화롭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인

멘토와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대학 2학년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한때 수시로 체험하던 영적 황홀감이 드물어졌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현명하다는 사람과 마주 앉아 물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는 없을 까요?" 나는 그가 "가능하지요" 하는 대답과 함께 불타는 느낌 유지법을 당장에라도 보여주길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친절하기는 했지만, 짧게 '그건 안 됩니다'가 다였다. 나는 한동안 그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힘들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영적으로 아프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히고 성숙한 삶



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해 조화롭게 작용할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건강할 수 있다. 바빙크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수한 음식이 우리의 영적 인격을 통해 길을 찾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방해나 혼란에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이

영적 질병

"조화"라는 단어로 건강한 영적 삶을 정의하는 바빙크가 병리(pathology)를 그 반대로 간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에게 영적 질병은 일방성에서 비롯된다. 그는 기독교 영성을 정기적으로 공격하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

"이런 느낌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인 거죠?"

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영적 건강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영적 삶을 공격하는 다양한 병리 현상까지 알아야 한다. 헤르만 바빙크(1854-1921)만큼 영적 건강과 질병의 개념을 잘 설명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최근에 출간된 개혁과 윤리학(Reformed Ethics)을 보면 바빙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바빙크는 "자연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썼다. 그리고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질병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영적 발전을 방해한다. 어떻게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까?

영적 건강

영적 질병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건강에 대한 성경의 개념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바빙크는 영적 건강에 대한 논의를 한 단어, 조화(harmony)

지성, 영혼, 의지와 거기에 종속된 능력인 이성, 이해, 양심, 감정과 열정, 본능과 성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을 작동시킬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 "기관"에 흡수되는 삶을 산다. 우리의 이성은 지적으로 말씀을 파악하고, 감정은 그 진리에 의해 자극을 받으며, 손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도록 인도받는다. 우리 인격의 각 부분은 이렇게 말씀과 조화롭게 상호작용한다. 바빙크는 가장 완벽한 건강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든다. "지성과 이성과 의지는 감히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성의 능력에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성의 적절한 위치를 알았고 결코 지성주의에 굴복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광신자가 아니었다. ...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삶의 모델이다". 바빙크에게는 예수님처럼 되고 그래서 건강한 영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동등하게 상호작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롭고 건강한 삶을 산다.

는 세 가지 주요 영적 병리를 지적한다.

1. 지성의 병

바빙크는 지성주의를 개신교에서 흔히 발견되는 끔찍한 질병으로 규정한다. 이 병리 현상은 선한 그리스도인이 교리와 지식에 모든 영적 강조점을 두게 하고 "감정적 삶과 실제적 삶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 건강한 정통성과 이런 증상은 어떻게 다를까? 지성주의의 오류는 좋은 정통성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올바른 교리를 존중하지만, "그것을 가장 높고 유일한 기준으로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오로지 교리만이 중요하다.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가 아닌가가 유일한 가치이다. 바빙크는 이 질병이 필연적으로 "행위의 의보다 더 나쁜 교리적 의"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석화하고 그 진정한 활력은 사라진다. 그리스도인이 지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기독교는 실제 삶이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변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상과 개념의 모음으로 전락한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패적이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야)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www.CKsingles.org 사진 공모전 찬양팀 축제 Praise Team Festival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18)
한국기독교인들을 위한 Dating Site를 소개합니다
*비영리단체이며 무료로 운영됩니다.
많이 등록해 주세요
이 Dating Site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또 결혼까지 하게되어 좋은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런지요.
젊은이 뿐만 아니라 중년 그리고 돌싱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조한진 목사, 이희상 장로 드림
SUPPORTING ORGANIZATION (협력단체)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뉴욕한인회)
AWARDS: Gold Medal \$2,000, Silver Medal \$500, Bronze Medal \$200 and Many More Prizes
www.CKsingles.org
HOST: www.CKsingles.org
INQUIRY: 516-398-8289 H. Lee, 646-369-7124 Chris Cho, Email: cksinglesusa@gmail.com

2세대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부흥의 움직임?

(1면에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

코너스톤 교회를 방문하는 동안, 나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리더들과 접촉하는 목사 마크 밴스에게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하신다는 징조가 드러나고 있는가?

1. 죄의 확산

밴스는 신자들 사이에서 죄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회개 과정이 루틴이 되고 일관성 있게 이뤄지고 있다. 깊은 회개와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진심 어린 소망이 따라온다. 그가 들려준 회개 이야기 중 일부는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남자 친구와 동거하던 한 소녀가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동안 결단하고 바로 그날 밤 이사를 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교회는 그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서둘러 숙박 시설을 마련했다. 밴스는 이와 비슷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죄에 대한 확산, 구원에 대한 확산, 이것이 야말로 몽유병 환자 같은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이다.

2. 영적 훈련을 위한 고양된 갈망

젊은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또 다른 부흥의 울림은 영적 훈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자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다. 오래된 전통이 돌아왔다. 사순절 금식, 교회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둔 의식,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 "믿고 하는 기도"라고 밴스는 말한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던 나이 많은 한 경건한 여자 성도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일러룸" 사역을 시작한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일러룸은 찰스 스필턴 시절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의 교인들이 매주 보일러룸에서 모여서 예배 시간 내내 예배를 위한 중도기도를 올리던 전통에서 따온 이름이다. 밴스는 젊은이들이 영적 훈련을 받아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의 혼란, 즉 제한을 억제라고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변명과 성장에 필요한 조건으로 패턴과 리듬을 중시한다. 말 그대로 보다 완전한 자유의 비전을 제공한다. 삶의 규칙을 제공하는 영적 훈련은 복음을 중심으로 안정의 원천을 체험하는 방법이다.

3. 선교 열망과 목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에 따라

살겠다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Cedarville 대학과 Salt Company에 관련된 모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또 Send Network를 통해서 확산하는 교회들을 통해서도 나는 점점 늘어나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확인한다. 젊은이가 늘어난다는 건 그들이 육체의 편안함이나 더 나은 직업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고 교회 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전국 각지로 이주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다. 그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큰 사명에 따라 삶의 결정을 내린다. 희생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영향력 이상의, 끝없는 스크롤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무언가가 진행 중이며, 그것이 지금 문화적 반대 속에서도 복음의 전진을 이뤄내고 있다.

4. 변증의 그라운드 제로

반대에 대해 말하자면, 변증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주요 초점이다. 하지만 밴스는 변증의 초점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나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한 설명과 같은 전통적인 질문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이제 거의 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집중된다.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적절한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의 몸은 신성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몸은 나 자신, 창조물,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자연스럽게 성적 매력,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 이론의 화제가 모두 여기에 나타난다. 과거 변증이나 구도자 사역이 추구한 방식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핫한 주제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밴스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뜨거운 화제일수록 더 흥미를 가지고 결코 피하지 않는다고 한다. 화제가 될수록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문화적 광기는 하나님에 시작에 불과하다. 처음으로 사역을 접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젠더에 대해서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하고 말한다. 그들은 성 혁명이 초래한 비참함을 가까이에서 본다. 누군가가 그들의 삶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려주길 갈구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길 원한다. 더 많은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유행을 없애고, 자연 자체와 일치하는 좋은 소식을 갈구한다.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고 싶어 한다.

5. 회심의 증가

밴스가 회심을 언급한 건 놀랍지 않다. 작년 부흥의 계절에 팀 켈러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썼다.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잠자던 그리스도인이 깨어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회심하면서 비로소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교회는 매력적인 장소로 바뀐다. 교회가 능력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회심자를 낸 코너스톤 교회에서 성인 회심자 세례 수가 작년에는 두 배로 늘었다. 밴스는 전국의 대학캠퍼스 사역과 긴밀히 연관된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보고를 받았다. 회심 이야기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어느 순간 마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전기로 채운 것처럼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극적인 상황, 완전한 반전이다.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갑자기 교회 문 앞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들의 배경 이야기를 들으면 실로 미쳤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놀랍다.

6. 아름다워지는 교회

결국 기독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젊은이들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생과 청소년들 사이의 영적 뜨거움에 주목하는 밴스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연장자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부흥의 불길이 번지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은혜로 가득 찬 복음의 기독교는 많은 사람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간다. 온전한 가족과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 이들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기에 이들을 보는 것처럼 감동을 주는 경험도 없다.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도덕적 증거는 왜 우연한 관계나 외로움에 만족하는 것보다 결혼이 주는 헌신과 안정이 더 나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편안함과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독신 생활이 결국 인생의 끝에 혼자 남겨짐을 의미하는 자립과 독립의 암울한 삶보다 낫다. 나도 지금의 현상을 선불리 부흥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모르지는 상황에서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건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2세대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부흥의 징조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떤 열매를 맺을지 궁금하다. 주님,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by Trevin Wax, TGC

목회단상

머느리 죄 때문에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한국 뉴스를 보다가 혼자 피식 웃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다 나를 본 아내가 왜 웃냐고 묻습니다. "그냥, 뉴스 보다가..."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부끄러운 일이라 말을 안 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모국의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는데 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웃은 이유는 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표결에 무효표가 나왔는데, 한문으로 '가'표기를 했는데 틀린 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기를 잘못해서 '가'를 표기해 상대 표로 계산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안건을 옹호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최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가부(可否)' 표기를 못해서(실수였다 치더라도) 국가의 향방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실소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재미난 일은 이런 웃픈(웃기면서 슬프다) 사연을 연일 시사 프로그램들은 그 이유를 풀어내느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조크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세례식을 앞두고 문답식을 진행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아마도 목사님은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려니 하는 맘에 한 질문인 듯합니다. 그런데 기대하던 대답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던 할머니 왈 "머느리 죄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내 죄'가 나올 줄 알고 계셨다가 생각이 빛나자 다시 물었습니다. "왜, 머느리 죄 때문인가요?" 그러자 할머니는 "머느리가 항상 기도 때마다, 말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라고 하니깐 내가 그리 안겨져 어찌 알겠노?" 하시니 겁니다. 덧붙여 "우리 머느리가 뭘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니 고마운 일이지"하시더라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답을 알고 있었다 해도 틀리면 무효가 됩니다. 실수로 잘 못 표기했노라 불멘소리를 해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벧전 3:15)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내 지난 실수에 대하여 말하거나, 공과를 설명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 어떤 대상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라 불리고 있다면, 누구든 나에게 당신이 가진 영성과 구원에 관하여 물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우왕좌왕 대답을 찾아 소란 떨다 틀리거나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기대하시고 성도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 우리의 실수에 연일 열을 올리고 비난해대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Word4u@gmail.com

Graduate School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 Midwest University

미드웨스트 대학교 국제 문화 예술 대학원

Location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Contact

art@midwest.edu
(636) 327-4645
www.midwest.edu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창의력을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FA/DFA

Art Education

Arts Therapy

Ceramic Art

Ballet / Dance Performance

Design Art

Jewelry Design

Natural Lacquer Art

Painting Art

Photography

Sculpture Art

학점 학위 취득 방법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 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흑사병

르네상스의 발원은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인간 역사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하여 물줄기가 휘돌아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신학자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치부하지만 말이다.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왕가 후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의 피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1차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었던 것처럼---

사실 르네상스의 출발점은 1348년에 일어난 흑사병이 큰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인을 모르는 병으로 피렌체 시민의 절반이 죽어 나가야 했으니 그 당혹감과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몇 시간 전, 식사를 함께한 이웃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그리고 그런 일이 앞뒤에서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말이다. 이런 손 쓸

틈 없는 정황에서 사람이 대응할 수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일시에 손 쓸 틈도 없이 쓰러졌던 것처럼,

유료굴라 풍랑을 맞은, 뱃사람들이 로마로 운반할 그 귀중한 밀들을 아낌없이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금고에 쌓아놓은 돈이 그런 상황에서 무슨 위로가 되었을까! 오로지, 흑사병만 걸리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한 가지 염원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일찍이, 기도를 드렸다가 효험을 보았다는 오르산미켈레 성소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찍이 그곳은 앓은병이 일어났고, 미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바랍처럼 전국을 휘돌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곡물 판매업자들의 길드(협동조합)가 사용하는 장소로 영성찬 창고에 불과한 곳이었다. 천장을 나무로 열기

설기 놓은 곳으로, 이층에는 시민들의 비상식량을 저장하였고, 아래층 한쪽 구석에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고로 곡물 상인들이 가끔씩 찾아가 성호를 긋고 복을 비는 곳이었다. 그런데 흑사병의 창궐로 그 허름한 곳을 이탈리아 전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예물을 지참하였다. 그래서 모인 헌금이 35만 피렌체 금화(현재 우리 시가로 약3천5백억원)이었다. 그 돈으로 성소를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단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연의 행동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고 더 나아가서 연옥의 공로를 쌓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기에 지옥 대신 연옥으로 가게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연옥에서 기나긴 성화 과정을 거친 후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오랜 기간을 보

내야 하기에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공로가 요구되었다. 그 공로는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의 성화를 위한 헌금을 드린대거나 교회의 장식물을 조각하는 데 후원하는 일이었다. 그런 과정이 르네상스라는 놀라운 문화와 예술을 흥왕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일찍이 인문학을 공부한 코시모 데 메디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 어떻게 물려받았고, 벌게 된 그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문화와 예술에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예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외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앞날을 예상하고 한 일은 아니었는데, 멋진 열매를 후손들이 거두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메디치의 그 많은 재산(15세기, 6천억)은 역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로마의 1차 삼두정치 한 사람은 크라수스는 얼마나 재산이 많

았던지 로마 시내를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그런데 코시모 데 메디치는 그가 아낌없이 쏟아부어 브루넬레스키로 하여금 완성한 피렌체 두오모의 돔을 보기 위한 관광객이 2013년에 약 3백만 이었고, 그가 공들인 우피치 박물관의 그림을 보기 위한 입장객이 5백만 이상이었다고 한다. 두 곳의 입장료만 합쳐도 연 2천억이 넘는 수익이었다고 관계 당국은 밝히고 있다. 그뿐인가, 가이드로 종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렇다면 연옥에서 고난을 탈기 위한 자신의 사사로운 공로가 피렌체 시민들에게 영원한 연금을 들 어준 셈이다. 그렇다면 피렌체 시민은 메디치 가문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전대사(공로로 대사면을 받은 가톨릭의 제도)를 통해,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보스턴장로교회)



인간은 발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진정한 발전이란 사람의 심성이 얼마나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에 차 있는지, 또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변화를 돌아보면 참 놀랍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크기에 비해서 우리의 정신은 오히려 남루해져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신적 황폐함이 심해져 가서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전문가와 약속을 잡으려고 수개월을 기다립니다.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사회, 미래에 대한 열정이 식은 나라, 의로움에 대한 집단적 의지가 결여된 사회는 매우 중요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빈곤하고 '목마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집단적인 정죄가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골라서 난도질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다 못해 진짜 죽여 버리기도 합니다. 정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죄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Chat GPT같은 생성형 AI 등 지식은 넘쳐나는데 그 지식은 사랑과는 점점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식과 주장은 공격적이고 이기적이며 매정합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누군가를 지목하여 모두의 사냥감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는 주권과 백성과 땅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 집니다.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약속의 땅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라는 22절을 읽으면서 건너기 전 앞에 가로놓인 홍해는 죽음의 바다였으나 일단 건너면 누구도 쉽게 뒤쫓아 범할 수 없는 강한 요새가 된다는 점을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바로 이 요새입니다. 하지만 안전시대라고 안심했던 광야에서 현실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

는데 "밤새도록"이란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진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 내면의 홍해가 갈라져 구원의 길을 내신 장면과 연결하게 됩니다.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으면서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 감격과 은혜로 자신감에 넘쳐 나서 이제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는가 하고 생각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을 걸어 광야를 지났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물이 넘쳐서 문제였고, 이제는 물이 없어서 곤란

합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감사는 어느새 말끔히 사라지고, 거칠고 험한 말로 희생양을 찾습니다. 물이 쓰면 어떻게 물을 달게 해서 마실 방법은 없을까 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홍해를 건너 감격과 찬양이 지금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큰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기껏 "마라"가 자신들이 도달할 수 있는 현실의 한계라고 비통해

황폐함을 새로운 풍요함으로 바꿀 능력을 힘써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임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답이 있습니다. 언제 이뤄질 것인지 미리 알 도리가 없어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바로 바라게 되어지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여질 수 없는 것들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희망차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군을 중단하지 않게 하는 저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또한 "마라"에서의 위기는 단지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으면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리'를 바로 앞에 두고 가지 못하는 뼈아픈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어 목을 축여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엘림으로 가는 길'에 우리 영혼의 힘이 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길목에서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엘림"으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약속의 땅으로 향한 믿음의 여정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27절). 풍성한 오아시스라는 얼마나 기막힌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마라의 현실에서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쓴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쓴 물에 던져진 한 나뭇가지는 주님의 나무 십자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십자가 복음, 생명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도 붙어 있는 우리들의 나뭇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쓰디쓴 현실에 던지면 혼란의 재앙이 아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구원의 삶과 믿음 생활을 비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난과 아픔도 그저 마실 수 없는 쓴 물로 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의 문제는 어지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지러움을 바로 잡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것은

마라의 쓴 물에 던져진 한 나뭇가지

출애굽기 15:22-27

서 노예처럼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자들의 오만한 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통해 패배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힘과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의 과정은 앞에 가로막은 홍해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광야의 안전 지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안전한 보장지대로 들어서게 된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이로써 위기는 일단락된 것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

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그 이후에도 현실은 진정한 발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훈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성화, 신앙의 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14장 21-22절에 보면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쫓고 있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물러갔습니다. 밤새도록 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모세의 바다를 향해 내밀어 들려진 손을 통해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봅니다. "밤새도록"이란 십자가의 죽음에서

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물이 있었습니다. 모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도 잠깐,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마라"의 쓴 물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나 했다가 어디를 둘러보아도 암울한 구원의 감격을 지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24절)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온 모든 백성은 다른 방도가 없다고 단정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물이 쓰다는 현실에서 밤새도록 싸우신 하나님께 구원하신 자신들의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져온 책임을 물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

하며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물이 없거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영혼이 메마르고 비틀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만큼 믿을 생활하면서 고생했으면 이제 새로운 현실이 열려야 하지 않겠나 했다가 예기치 못한 난관에 직면합니다. 우울해서 구원의 삶과 믿음 생활을 비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난과 아픔도 그저 마실 수 없는 쓴 물로 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의 문제는 어지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지러움을 바로 잡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것은

schang@bostonkorea.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성별 공정성의 논란에 휩싸인 2024파리 올림픽과 영적 의미 -1-



2024년 파리올림픽은 4시간씩이나 되는 개막식부터 기독교를 지독하게 모독하고 우상숭배와 매우 demonic 한 내용을 다루어서, 수많은 비난뿐 아니라 보이콧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에 성별 자격 테스트에 불합격한 적이 있는 알제리의 이마네 켈리프와 대만의 린 유티 두 선수의 여자 복싱 승리가 논란의 중심에 있기에 나눕니다.

지난해 2023년, 성별 자격 테스트에 불합격한 알제리인 복싱대표, 이마네 켈리프(Imane Khelif)는 다음과 같이 여성 복싱에서 승리를 거둬서 결국 파리올림픽 여성 복싱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

- 켈리프(25세)는 여자 복싱 66kg급에서 첫번째 상대였던 카리니(이탈리아)를 46초 만에 쓰러뜨렸습니다.
- 그 후 8강, 헝가리 복서 안나 루카 하모리를 만장일치 판정으로 꺾었는데, AP 통신은 경기 전인 금요일에 헝가리 복싱협회가 켈리프 선수의 불확실한 성별 문제 때문에 이번 대결에 대한 "항의 서한"을 IOC와 헝가리 올림픽위원회에 보냈다고 보도함
- 태국의 안젠 수완나펙(준결승)을 꺾고 결승전 향함.
- 금요일 드디어 결승전에서, 중국 복서 양 리우(Yang, Liu)도 만장일치 5-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켈리프의 승리뿐 아니라, 알제리 국가 여자 복싱의 첫 금메달이기에 국가적으로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의미깊은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금메달을 받은 켈리프 선수는 BBC 스포츠와의 짧은 인터뷰 외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는데, BBC에서 "저는 금메달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두번씩의 성별 테스트(sex tests)에

국제복싱협회와 국제올림픽 준비위원회의 의견 불일치 및 뜨거운 논쟁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켈리프 선수는 사실상, 2023년 국제복싱협회(International Boxing Association : IBA)에서 여자부 출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가 되었었고 그 이후 올림픽 참가 여부가 집중적인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별 자격 테스트에서 남성으로 나와 불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파리올림픽을 주관한 국제올림픽위원회는(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두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권리를 옹호하며 오히려 IBA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처음에는 선수가 DSD(Difference of Sex Development) 또는 Disorder of Sex Development) 라는 주장을 펼치다가, 현재는 두 선수들은 그들 국가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랐고 항상 여성으로 경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SD란 (Difference of Sex Development 또는 Disorder of Sex Development) 약자로, 염색체, 성호르몬 균형, 내부 해부학 또는 외부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련의 상태를 설명하는 의학 용어인데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섹스(intersex: 남녀 성기를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로, 온세상에서 매우매우 드든 경우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작은 비율의 비정상적인 성 발달의 모든 변형(변종)들을 포함하기 위한 용어로, 현 바이든과 케말라 해리스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성별, 성적체성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infinite, spectrum" 라는 정치적 궤변을 옹호하는데 가장 잘 쓰임 받는 용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SD는 비 합의적인 의료화(non-consensual medicalization)와 때로는, 의료 기록 위조(falsification of medical records)를 통해 gender binary(남자나 여자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을 주장하던 남성이 주로 여성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성별 전문가들은, DSA가 "차별화 differentiation" 또는 "변종 variation" 중 선택해야 하는 매우 controversial한 것이기에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불확실한 성별을 옹호한 IOC 에 대한 비평가들과 지지자들의 반응은?

최근 몇 년간 성별에 대해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트랜스 혐오자" 라는 비판을 받아온 작가 J.K. 폴링은 이번 복싱 시험을 보고,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자를 때리는 것이 왜 괜찮은지 설명좀 해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전 대학 수영 선수이자 여성 스포츠의 인권운동가로 뛰고 있는 라일리 게인스는 이번 복싱결과에 이어, "남자는 여자 스포츠에 속하지 않는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라일리 게인스의 트윗에 "물론이고 당연한 말이다."라고 덧붙이며 공감을 표시하여 또 한 번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번 파리 경기 영상을 공유하며 "나는 남성을 여자 스포츠에서 배제할 것이다!" 라고 대문자로 써서, 역시 수많은 사람의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다음에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불타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를 거쳐 작은 개척교회를 맡아 시무했으나 수년이 지나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상처만 안고 목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야 하나 또 실패할까 봐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 가든 그로브 최목사

프로정신

A: 프로 야구경기에서 타자는 배팅 박스에서 서서 투수가 던지는 볼을 치다가 안타와 홈런도 치지만 가끔 몸에 맞는 볼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맞을 때마다 투수와 싸울려고 하면 안됩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프로는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늘 환영만 받는 것도 아니기에 상처를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 부릅니다. 상처치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눈 녹듯이 상처가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란 책을 읽어보니 말하면 다 아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민 목회가 너무 힘들어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고 목회고 다 팽개치고 삶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와이의 어느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였습니다. 하와이 코나의 목회자 제자훈련 집회를 마치고 마우이섬을 지나 LA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 다. 사람은 계속 그의 마음속에서 "그래 다 포기해라,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끝내라" 라고 충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우이섬의 한 순복음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받으려고 가보니 한국의 부흥사 같은 분이 와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지 신체장애를 가진 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 전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 사탄이 또 영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마음이 아주 힘들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 "하나님 이제 죽고 싶어요 내 삶이 지속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무슨 기쁨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휠체어를 탄 한 형제가 소변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뚱이 불편해 일어 설 수 없으니가 가지고 온 플라스틱 통에 소변을 분후에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원래 저 사람보다 더 귀한 인간이더냐?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일 저 사람에게 있는 고통이 나에게 임했다면 너는 살 수 있었겠느냐? 주저없이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책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고통과 불행 속에서 서도 조금도 불평 않고 삶을 살아가는데 너는 작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입술로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느냐? 너 입술로 중얼거린 것이 너 혼자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네게 허락한 네 인생을 사탄에게 던진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화장실에서 선 채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의 손길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녹이게 될 때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속의 상처들을 불로감할 수 있는가? 배구에서 공격수가 공격하면 불로감하면 오히려 자기들의 한 공격이 자기편에 공이 떨어져 한점을 찍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로감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맞으면 맞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프로정신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listing churches and their pastors: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벨벳교회, 보스톤장로교회,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알칸사 제자교회, 앵커리지델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티코마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repeated 6 times).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폭염

연일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얼마나 더운 걸까? 상당히 두껍다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 그 이상이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폭염에 대한 경고 문자가 뿜겨진다. 거주지에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경쟁이라도 하듯 보내온다.

수단이라도 되는가 보다 할 정도다.

하도 덥다는 말들이 난무하다 보니 정말로 더운 것, 그 이상의 뜨거운 맛이 떠오른다. 북 16장에 소개된 말씀이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 시원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신의 입술에 적셔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러나 그 부탁은 여지없이 거부되고 만다.

지금 이상기온으로 발생하는 폭염과 불구덩이 지옥을 비교할 수 있을까?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견디려 하면 견디지 못할 폭염에 대한 경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뿜어내는데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지옥에 대한 경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울까?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 갔다가 불이 불은 떨기나무의 그 이상함을 경험했다.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전혀 사그라지지 않는 이상함이었다.

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며 상식이다. 그런데 떨기 나무처럼 불타는 몸의 그 뜨거움, 따가움, 고통은 이어지는 데 타고 있는 몸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은 아주 조금도



줄어들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이상 현상이 무서운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한다. 그저 감정적으로 아주 조금 이해하는 정도에 그친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지옥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찌하여서라도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의 문지방을 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어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도예배에 일곱 형제들이 다 모였다. 그 중에 두 형제와 아직 확신이 부족해 보이는 한 형제도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작심을 하고 요 16:9의 말씀을 전했다.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나 이제 아니었다. 혹 형제들이 거부할 수 있더라도 부자가 지옥에서 겪어야 하는 그 지경은 막아야 하는 것이 만이며 목자인 나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비가 오리라라는 예보를 듣고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비가 쏟아지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부자가 맞고 있는 그 지옥의 예보를 믿는 자들은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쳐야만 한다.

살아 있는 동안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듣는 것이 복이다. 폭염 주의보는 참고하면 되지 만 지옥 경고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필수 중의 필수임을 세상이 알도록 하자.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VR은 신앙교육 예배 드릴 수 없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들백교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프라인은 물론 메타버스 가상공간 'VR 챗' 프로그램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당 VR 공간을 만든 제작사 '더포탈서치'는 계정을 통해 새들백교회가 3개월 만에 최대 수용인원 80명을 달성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18만5000개의 '좋아요'와 3600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현실과 가상세계 교회를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美 7월 도매물가 0.1% 상승... 중시 상승 출발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7월 생산자물

가지수(PPI)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노동부는 7월 미국 P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최종수요 재화 가격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반면 최종수요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재화 가격 상승분을 상쇄했다.

한편 미 증시는 이날 다소 상승세를 그리며 개장했다. 오전 10시(미 동부시간 기준)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8%(47.02포인트) 오른 5391.41에 거래 중이다.

네타나후 국방장관과 갈등, 이란 부통령 사임... 전쟁 앞두고 내부 갈등

미국 백악관이 "이란이 이번 주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는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최고위층에서 심각한 내부 갈등이 표출됐다.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나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가자전쟁의 목표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내며 서로를 비판했고, 이란에서는 새로 선출된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최측근인 자바드 자리프 부통령이 보수적 내각 구성에 반발해 사임했다.

에는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깊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12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스라엘군이 왜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과 전쟁을 벌이지 않는지 질문에 "영웅들의 목소리와 함께 '절대적 승리' 같은 현실수설이 들려온다"며 "오늘 레바논에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이 전쟁이 시작된 상황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갈란트 장관의 발언은 반이스라엘적이며 인질 석방 협상을 방해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선택지는 완전한 승리 하나뿐"이며 이런 목표를 현실화하는 것은 "총리와 내각의 명확한 지시이며, 갈란트 장관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태풍 '마리아' 일본 혼슈 북부 관통해 동해로... 8300명 긴급 피난

제5호 태풍 '마리아'가 12일 일본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태풍 마리아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이와테현 오후나토시 부근에 상륙한 뒤 북서진해 오후 8시쯤 아키타현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고 발표했다.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태풍은 열대저기압으로 바뀔 전망이지만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은 14일까지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태풍의 속도가 느려져 도호쿠 지방과 홋카이도에 미치는 영향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NHK는 이번 태풍으로 이와테현 등에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하루 도호쿠와 도쿄, 오사카를 잇는 항공편 86편이 결항됐고, 오후부터는 고속열차인 아키타 신칸센의 아키타-모리오카 간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

'메달 보너스' 가장 많이 쓰게된 나라는?... 146억 '이곳'

12일 막을 내린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개최국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자국 메달리스트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약속했다. 이 중 이탈리아는 146억원 지급을 약속해 가장 많은 금액을 주게 됐다.



이탈리아는 개막 전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19만6000달러, 은메달 9만8000달러, 동메달 6만5000달러를 주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5개를 획득했다.

프랑스의 메달 보너스 규모는 940만 달러(약 128억원)다. 메달 순위 1위에 오른 미국은 금메달 보너스가 3만7500달러 정도여서 총보너스 액수가 830만 달러(약 113억3000만원)로 추산된다.

이런 대회에서 우크라이나는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땀고 이스라엘은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의 성적을 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14)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X. 세속화 신학 (Theology of Secularization)

세속신학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적 입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형이상학적 입장 (supernatural metaphysical positions)을 거부한다. 세속주의 (secularism)는 반종교적, 과학적, 그리고 물질적인 개념이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초월적인(transcendent) 신이 아니라, 내재적인 (transcendent) 신이다. 세속주의는 초월적이고 다른 세계의 실재를 거부하며, 세상적인 실체만 인정한다. 그리고 성스러움보다는 세속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에서 나오는 세계관이다.

세속주의는 르네상스 인본주의, 계몽주의, 과학의 발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전통적 체계를 무너지게 했으며, 기술 혁명, 국가 간의 경쟁, 진화론, 마르크스주의 등이 계속적으로 세속화를 발전시켰다.

세속주의는 하나님과 초자연적 실체를 몰아내는 작업을 해 왔다. 당연히 세속주의는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찬양을 아끼지 않는다.

1960년대에 발전된 세속신학은 신정통주의, 디트리히 본회퍼, 하비 콕스, 그리고 쇠렌 키에르케고르와 폴 틸리히의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다. 로빈슨 (John A. Robinson)은 "세속 신학이 토마스 J. J. 알타이저 (Thomas J. J. Altizer)의 사신신학 (Death of God Theology), 그리고 틸리히 (Tillich)의 철학적 실존주의와 같은 사상이 신학의 주류에 쉽게 도입되어 이 세속신학이 되었다"고 보았다.(John A. Robinson, Honest to God).

인본주의자 짐 해릭 (Jim Herrick)은 세속주의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가장 큰 의미에서 세속주의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정책을 채택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관계성을 세우고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종교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Secularism in the largest sense means that people do not refer to religion to make decisions, to adopt policies, to run their lives, to order their relationships, or to impel their activities"; Will Secularism Survive? 에서 인용).

한 마디로 말해서 세속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세계관이다.

1945년 로버트 W. 프랑크는 세속주의는 "종교에 관계없이 인간의 이성, 과학, 사회 조직을 통해서만 인간의 발전을 추구하는 다양한 공리주의적 사회윤리"라고 했다.

세속화 신학은 196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은 1966년 4월 8일

출판된 <타임> 매거진이다. 이때 타임의 주제는 "하나님은 죽었는가? (Is God Dead?)" 이다. 이미 20세기 중반에 미국과 서구 사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추방시켰다는 상징이다.

존 로빈슨은 <신에게 솔직히> (Honest to God)를 출판함으로써 세속화 신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로빈슨은 "저 위에 계시는 (up there) 하나님의 (물리적, 형이상학적, 혹은 비유적이라도) 개념은 시대에 뒤졌고, 의미가 없으며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세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미지 (new image of God)와 기독교 교리를 급진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radical reinterpretation) 주장했다. 로빈슨은 틸리히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 (the Ground of our very being)"이며, 하나님의 교회

의 존재 목적은 종교인들을 위한 조직체가 아니라 주장했다. 기독교 신자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Love God and do what you like). 로빈슨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는 지워야 한다" (The line between church and the world must be erased)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비 콕스 (Harvey Cox)가 1965년 출판한 <세속도시> (The Secular City)를 출판하면서 세속화 신학을 확산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세속도시란 세속과 도시를 합친 말이다. 그는 현대의 도시화, 기술화 그리고 삶의 형태를 지적한다. 그는 성경의 세계관은 자연 숭배를 막고 지배자를 우상화하지 않는다. 왕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또한 세상 가치들을 높이지 않는다. 자연의 힘이나 사회질서 이념들을 우상처럼 섬기지 못하게 한다. 그것들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 부리고 정복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가르친다. 그러므로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한다. 궁극적인 것, 혹은 종교적인 문제에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일시적인 것 (이해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것)들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속화 신학자에 의하면 현대인은 종교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반종교적이지도 않다. 단지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세속적이다. 현대인들은 초자연적이나 신화적인 세계관에는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는 성숙과 책임을 요구한다. 세속화는 성숙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 모든 부분에서 어딘가에 같이 하나님의 의존함을 없애 준다. 도시화는 인간 사이의 상호성이란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

프랜시스 슈퍼 (France A. Schaefer)는 <도시속의 죽음> (Death in the City)에서 에레미야가 도시에서 죽음이 있다고 외쳤으며,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사실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지만 인간과 인격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단지 사람의 수가 많고 적다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집중은 사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그것은 영적 측면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정적 도시관에 반대하여 다른 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도시와 시골이 그 구성요인에서 다를 뿐, 오히려 도시에서 더 풍요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기회를 만날 수 있으며 긴밀한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구성론과 도시에는 출신 지역과 문화, 그리고 교육수준과 직업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다른

화론이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도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최초의 도시는 가인에 의해 건설되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 자기 보호와 하나님 없는 독립적 변명을 목적으로 에덴의 동쪽에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켰다. 또한 함의 아들 므롯도 노아의 저주에 대항하여 도시를 건설하였고, 결국 최대의 도시 바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분열되고 파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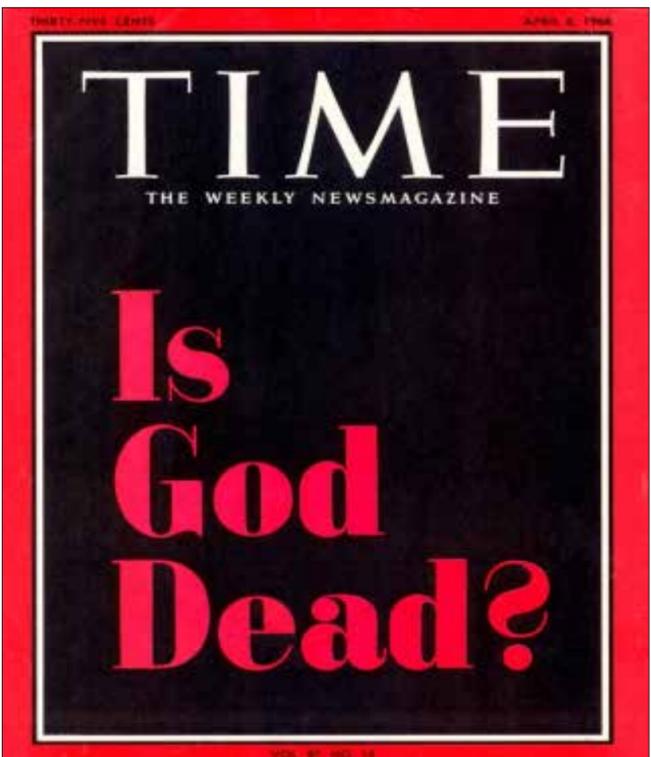
영국의 C.S. Lewis와 흡사한 프랑스의 역사학자 자크 엘룰 (Jacques Ellul)은 <도시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City)에서 도시와 저주, 도시와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미 건설된 도시에서 단순히 살 수는 있으나 그것을 확장하는데 참여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니느웨에서 최초의 도시 구원을 볼 수 있으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도 선전과 함께 멸망하였고, 우리는 천상의 새 예루살렘만을 기다리는 일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어거스틴은 <신의 도시>에서 도시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와 자기를 사랑하는 도시가 있다고 분류하고, 인간의 도시는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를 소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천상의 도시를 기다리지 말고 세속화와 도시화의 융합으로 발생한 세속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수용하고 선교적 자세로 임하자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적 관점에서 두 도시를 다 포기할 수 없다. 종말론적으로 천상의 도시 예루살렘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지상의 도시들에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 죄악이 광범한 세상을 사랑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시와 도시인들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도시는 세속의 바벨론과 거룩한 예루살렘의 두 속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도시의 복음화를 통해 세속도시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웨이 맥스(Wayne Atherton Meeks)는 <최초의 도시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의 사회적 세계>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1983)에서 바울이 얼마나 도시를 사랑하며 도시 중심으로 선교했는가를 설명한다. 도시 자체는 많은 사회적, 신학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선교적 동기에서 도시를 사랑하고 도시복화에 헌신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안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원신학교: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6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5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cscsa 1645 Beverly Blvd., Anaheim,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장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학교: 오후 2:00 영어예배 (꿈초·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714)719-2244, www.dkgcc.org 15411 N.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10)939-97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c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hel@hkc.org / www.h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베델까지 밤 11:00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 www.wjcc.org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살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66 살비치 리저럴즈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F)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오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8,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회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시무대상: 1. 여성사역자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뚝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 (212)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안락회관: 오후 7:00-9:00 Tel: (714)446-6200, www.graec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g.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영인/영년): 오전 11:45 송-고등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sunngch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s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V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송극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통영유년생(주일): 오전 9:30 화요일 3:30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기도회: 오전 9:00 TEE-성경을 읽는(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발한인장로교회)



마음의 밭(Field of the Heart)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밭에 있는 돌을 골라내거나 가시나무 같은 것을 뽑아내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정리하고 가운데 좁은 길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왔다 갔다 하며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안에도 떨어지고 농부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밭은 크게 길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옥토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종류의 마음 밭이 있습니다(Four Types of Heart Fields).

1. 길 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마13:4) 길가는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길가 밭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못사람들의 맑은 밭길에 의해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밭입니다. 본래는 부드러운 땅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밟고 또 밟고 다녀서 딱딱한 땅이 됐습니다. 이런 길가에 씨가 떨어지지 근처에 있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입니다.(마13:19) 길 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만 되며 좋고 딱정 피웁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고 정성이 없으니가 혹 말씀은 들으나 금방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것처럼 사탄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2.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문자 그대로 돌투성이 밭, 돌 짝 밭, 자갈밭을 말합니다. 땅속에는 돌들이 많고 갈래는 얽은 흙이 덮인 밭입니다.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지면 썩은 트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버립니다.(마13:5)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사람은 경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볍습니다.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은 행동은 빠른데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다분히 기본적인 감정적입니다. 은혜도 잘 받고 은혜를 쏟기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버티지 못합니다. 조금만 태양 빛이 쪼이면 금방 쉽게 말라 버립니다.(마13:21) 무리 중에는 예수

님의 말씀을 쉽고 가볍게 받아 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가족과 전통과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핍박합니다. 그러자 말씀의 뿌리가 없는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의 무리들은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쉽게 포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었습니다.

3. 가시떨기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마13:7) 가시떨기가 우거진 곳은 그늘지고 습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썩어 나사 잘 자라는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시도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는 더 빨리 자랍니다. 결국은 열매가 맺을 때쯤 되면 가시덤불에 둘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마13:22)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시가 올라와 막아 버립니다. 가시덤불이 내리누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 올 때 계산적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은 일반 악의 뿌리가 되는 물질 숭배, 술과 향락주의, 오락 주의를 끊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밭은 천국을, 한 밭은 지옥을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4.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마13:8) 이 옥토는 좋은 땅을 말합니다. 옥토는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방해되는 돌이나 자갈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은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햇빛이 잘 드는 밭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은 위아래에 장애물이 전혀 없는 마음의 밭입니다. 씨앗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서 이곳에 떨어진 씨는 곧 썩어 나고 잎이 나고 쭉쭉 자라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분들의 경우 30배에 족하지 말고 60배에 족하지 말고 100배 열매에 도전해야 합니다.(마13:23)

기경하면 옥토가 된다.(When Cultivated, the Soil becomes Fertile)

마음이 밭이 길가 밭, 돌 짝 밭, 가시떨기 마음의 밭도 잘 기경하면 옥토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 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묵은 땅이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1~2년만 내버려 두면 금방 길가 밭, 돌 짝 밭, 가시밭이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등한히 여기면 금방 묵은 심령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까요? 길가 밭, 돌 짝 밭, 가시떨기 밭 같은 땅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호10:12)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갈아엎어, 돌을 걸러내고, 흙을 부서 트린 후, 거름(퇴비)을 주었을 때 비로소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육신의 각종 욕심을 버리고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며 심령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마음 밭을 일구어 가는 방법입니다.

좋은 마음 밭이 되려면 많은 경건의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을 개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름이 필요합니다. 거름을 영적으로 본다면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은 실상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거름이 없는 것 같이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어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생의 과제입니다. 내가 다 되었다고 졸며 자고 있을 때 마음 밭은 점점 쓸모없어질 것입니다. 좋은 마음 밭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며 감사하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고대하는 사랑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며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에 밭이 되어 30배에 족하지 말고 60배에 족하지 말고 100배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회복의 꽃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일부를 옮겨본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시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흔들리다'는 동사다. '흔들다'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피동사다. 사람들은 저마다 순탄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사는 이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역경을 통과하며 삶이 무르익어가는 것 같다. 결혼 서약할 때 대부분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를 애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이 서약을 할 때는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과정은 그리 평탄하지는 않은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자녀까지 생기면 서로를 바라보며 챙겨주던 마음이 아이에게로 분산되며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의 언약은 위협받기 시작한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일 순위였던 자신의 지위가 자녀 다음으로 밀려난 기분에 언짢아하고, 아내들은 이런 남편의 태도가 야속하다고 불평하면서 티격태격한다.

서로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분주하게 살아오다 어느덧 중년의 시기를 맞게 되면 배우자의 습관적인 행동에 흠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며 미워지는 단계가 온다. 그러면 말이 굵게 나가지 않는다. 게다가 이해심 많고 너그러운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에 속상해하며 빠지고 뾰족한 언어로 심사를 흔들어버릴 때면 그런 모습이 낯선 아내들은 이해할 수 없어 마음으로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이것이 잦아지면 더 날카로운 송곳 같은 말로 남편의 자존심을 후벼파버리기를 반복하며 부부는 위기를 맞게 된다.

위기를 겪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본다. 서로의 이기적인 본성만을 강요하며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자신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불편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에 반응할 때는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며 불편했던 사실을 말하고 그것이 나에게 끼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기분이 나빴던 일이 계속 생각이 난다면 그 이유를 떠올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작업이 도움이 된다. 곧 그 이유가 합리적인 것인지,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닌지,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등을 다시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다.

모든 인생은 역경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훈련하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시밭 같은 결혼의 위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은 없다. 갈등 속에서 회복의 꽃을 건강하게 피어가는 독자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한다.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TX, FL, etc.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앨매교회)

보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의 차이

요즘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자신이 알고 싶은 지식이나 만들고 싶은 방법들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동영상을 자세히 보고 따라서 하면 자신이 만들

고 싶은 것을 만들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집 뒷마당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너무 쉬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리트 작업을 하려면 시멘트를 물과 잘 혼합해서 소위 반죽을 잘해서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멘트를 혼합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시멘트를 물과 미리 반죽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시멘트를 땅에 쏟은 후에 그 위에 물을 여러 차례 뿌려서 굳게 하는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힘들게 시멘트를 혼합하지 않고 시멘트를 펼친 후 그 위에 물만 뿌려주는 영상을 보고 나니 나도 할 수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콘크리트 작업을 의뢰하면 비용이 비싸서 그동안 미뤄왔던 집 옆 마당에 콘크리트 작업을 동영상에 본대로 따라서 스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시멘트를 사 오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시멘트를 홈플러스에 주문하니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땅을 다지고 시멘트를 붓기

위한 틀을 짠 후 틀 안에 시멘트를 부어서 펼쳤습니다. 그냥 시멘트를 부어 펼쳐 놓으면 표면이 고르지가 않게 되어서 유튜브에서 보여준 대로 페인트 솔로 부드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아주 약한 수압의 미스트로 물을 1시간 간격으로 두 번 뿌려 준 후 사워로 여러 차례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여준 대로 다 하고 나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본 대로 나의 콘크리트 작업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페인트 솔로 밀어주고 난 후 시멘트에 물을 뿌려주니까 표면이 아주 고르면서 매끈하게 되었는데, 내가 만든 것은 시멘트는 잘 굳었는데 표면이 시멘트 속의 작은 돌들이 위로 나와 울퉁불퉁하였습니다. 내가 영상을 보고 가

지게 된 마음과 내가 본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영상으로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낯이 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대로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지?" "똑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는데 왜 내가 만든 음식은 맛이 없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서 자신이 본 영상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본 대로 시도해 보지만 생각처럼 똑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

과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본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려면 많이 시도해야 합니다. "나는 왜 당신처럼 안 되지?" "나는 왜 그렇게 되지가 않지?"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답을 듣습니다. "경험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시각적인 영상을 수없이 많이 보는 시대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많은 초점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앙생활은 보는 것으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실제로 행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꾸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회 되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 yosupbois@gmail.com

KAPC 목사장으로 기도회 열린다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KAPC 총회장 권혁천 목사) 교육부(부장 장용호 목사)가 주관하는 목사장로기도회가 11월 4일(월)-7일(목)까지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이황영 목사/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에서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류인현 목사(뉴푸른티어교회 담임)를 주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릴 본 기도회는 주강의 외에 ‘개혁주의의 경건과 권장’(김동수 목사), ‘교회의 재

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주성철 목사), ‘이민교회의 현실과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이민교회가 나아갈 방향’(박성일 목사)의 주제 강의도 준비된다. 본 기도회 참석 대상은 목사, 장로 부부이며 회비는 없다. 단 호텔 등록과 차량은 노회별로 준비하면 된다. 등록 마감은 9월30일이며 총회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도회 장소 교회 근처 호텔 추천과 그 외 사항은 총회 홈페이지(www.kapc.org)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917)698-8587(장용호 목사), (714)718-4633(이광형 목사)에게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영적 질병에 대한...

<2면에서 계속>

2. 감정의 병

감정의 질병은 “종교 생활을 오로지 감정과 영혼에만 국한한다. 모든 주제를 온통 거기에만 집중한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믿음 체계를 전적으로 감정에 의존한다. 즉 하나님의 인재를 추구하는 주관적인 느낌에서만 영적 행복을 찾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게 내가 2학년 때 써줬던 바로 그 바이어스였다. 깨어진 이런 식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오로지 우리가 “감정을 통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에게로 빠져들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신비주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종교 형태는 주체적인 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성경을 아예 계시의 “낮은 형태”로 격하시키기도 한다. 물론 모든 신비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다. 바빙크는 성화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다름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작용하는 진정한 신비 경험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체험과 영적 느낌만을 중요시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유일한 참된 원천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황홀감을 유지하려는 욕망에서 건강에 온갖 해로운 술책까지도 쓸 것이다.

3. 의지의 병

의지의 병은 경건함과 외부로 드러나는 도덕 행위를 주된 것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한다. 경건주의자는 순전히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에만 가치를 두는 오류에 빠진다. 그들은 영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행동을 강조하지만, 그들 속에 흐린 “세속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는 예술, 역사, 과학 등 비종교 영역이 들어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적으로 되는데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경건 방식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오로지 우리가 “감정을 통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에게로 빠져들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신비주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종교 형태는 주체적인 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성경을 아예 계시의 “낮은 형태”로 격하시키기도 한다. 물론 모든 신비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다. 바빙크는 성화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다름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작용하는 진정한 신비 경험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체험과 영적 느낌만을 중요시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유일한 참된 원천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황홀감을 유지하려는 욕망에서 건강에 온갖 해로운 술책까지도 쓸 것이다.

영적 치료

멘토 앞에서 깊은 실망을 느끼고 몇 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느리지만 내 삶에 더 큰 건강을 가져다주셨다. 바빙크와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nearness)에 대한 나의 판단이 내 영적 삶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셨다. 나 자신을 제대로 살펴볼 때, 내게는 전인격적 접근이 필요하다. 바빙크가 지적한 세 가지 형태의 영적 질병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해 각 부분에 적극 적용하라.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먼저 지적으로 이해하라. 명확한 생각으로 정의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수반되는 감정을 느껴보라. 그런 다음에 그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응답할 때, 우리는 온전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통합된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사역이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균형 잡히고 완벽한 모범으로 지금도 서계신다. 건강한 머리와 마음과 손을 가지고 생활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적 기관을 통해 조화롭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

by Caleb Clark, TGC



강태광 목사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 교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 부흥회

월드웨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가 지난 8월 2일 아침부터 4일 저녁까지 애리조나주 시에라 비스타에 있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성도가 행복을 누리야 할 이유와 노

하우를 전한 강 목사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 목사가 한국군목으로 파견되어 근무했던 미8군 시절에 만났던 성도들과 우연히 연결되었고 이들이

이번 집회에 강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것이다. 강 목사는 “시에라 비스타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건강하고 알찬 교회다. 교회 구성원은 국제혼 가정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며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아내들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주의 일에 힘차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임 목사님이 미군 군종목사로 임대하는 바람에 1년간 목회자가 없어도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이 강단을 지키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지키는 건실한 교회”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교회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영어권 목회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사람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는 아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이름 : 심 종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 생

연락처: 작은 아버지
(213)905-3874 /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Seeking EM Pastor

The Southern Korean ARP Church (ARP,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is currently seeking for full time English Mistry Pastor and Youth Ministry pastor.

We are seeking someone who:

- 1. An ordained minister in the Reformed Church
- 2. Legal U.S. resident
- 3. Experience in decommissioning is welcome
- 4. Youth ministry pastor can be seminary students

Application Requirements:

- 1. Resumes with photos(Including Faith History)
- 2. Personal Testimony (family, background, and ministry experiences)
- 3. One recent sermon (online link of file)

Salary and benefit:

- 1. Make a case for compliance with ARP denominational rules

Application:

- 1. We are accepting applications from interested candidates on a rolling basis until the position is filled.
- 2. Please submit via email to: sungsong1960@gmail.com
- 3. Applications are accepted by email only.

동부교계 기사관

광복절 제79주년·건국 76주년 기념 감사예배

“기억하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은혜”

퀸즈장로교회, 킹스아카데미 한국학교 등록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9월 28일부터 5월 31일(2025)까지 28주간 킹스아카데미 한국학교를 연다. 등록은 8월 28일(금)까지이며, 대상은 PreK부터 고등학생이다.
 ▲ 문의: 전진영 전도사 267-476-2042

뉴욕실버선교학교 제38기 2024 가을학기 개강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은 8월 26일(월)부터 10월 28일(월) 10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롱아일랜드 성결교회(담임 이상원 목사)에서 선교관련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뉴욕실버학교를 개최한다. 대상은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이며 등록비는 100불이다. 이번 단기선교는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온두라스에서 사역한다.
 문의: 김경열 목사 917-963-9356 (훈련원장), 이형근 장로 646-220-822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간증집회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는 9월 6일(금) 오후 6시 프라미스교회에서 한인사회 백년대계를 위한 청년 전도 초청 만찬을 위한 김용태 장로 간증집회를 개최한다.
 ▲ 문의: 917-841-7558, 201-960-44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평신도 음악원 개강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가을학기 평신도 음악원을 개강한다. 모집인원은 하모니카 10명, 키보드 10명, 기타 10명이며 마감은 8월 30일(금)까지이다.
 ▲ 문의: 김신정 행정실장 646-708-1101

영생장로교회, 영생선교문화원 단원 모집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9월 7일(토)에 영생선교문화원(KCM)을 개강하며, 대상은 K1부터 K12이다.
 ▲ 문의: 민예진 집사 267-475-3239



왼쪽 더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목사, 오른쪽 하늘가족재단 이사장 황미광박사

하늘가족재단, 더나눔하우스에 후원금 전달

하늘가족재단 이사장 황미광 박사는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기 위해 후원금 \$1,000을 전달했다.
 더나눔하우스는 노숙자와 중독자들의 치유와 자립을 돕는 기관으로,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쉼터 관리 및 유지에 월 20불의 정기 후원자를 모집하며, 1,000 구좌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노숙의 위기나 중독으로 지체 정신장애로 삶이 힘든 분들은 아래로 연락하면 된다. 노숙자 입실 및 후원안내 718-683-8884 (기사제공: 더 나눔하우스)

뉴욕원로성직자회(회장 한문수 목사)와 뉴욕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8월 7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상철 목사)에서 광복절 제79주년·건국 76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택용 목사(부회장) 인도로 시작한 1부 감사예배는 기도한필상 목사(총무), 특송 유니스지 목사, 설교 정관호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봉헌기도 이승진 목사(회계), 축도 방지각 목사(이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관호牧사는 “하나님의 큰일 (시편 126:1-6)”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은 일제의 억압에서 1945년 해방된 날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큰일이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다.
 2부 한문수 목사(원로성직자회장)의 사회와 김정길 목사(목사회 서기)의 기도로 시작된 광복절 제79주년·건국 76주년 기념식은 애국가·미국가 제창이 있었으며 광복절 노래는 김영환 전도사, 임관순 선생이 인도했다.



뉴욕원로성직자회·목사회, 광복절 제79주년·건국 76주년 기념 감사예배 후 기념 촬영

이어 광복절 제 79주년 기념사 윤세웅 목사(KCBN 이사장), 건국 제 76주년 기념사 노기승 목사(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성음크로마 하프연주단의 축하 연주 후 경축사 김광석 회장(뉴욕한인회), 축사 김홍석 목사(교협, 목사회 증경회장)와 하정민 목사(목사회 부총무)가 전했다. 김홍석 목사는 “해방의 기쁨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가치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마 5:14)라는 주제로 제25회 총회를 8월 13일(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상철 목사)에서 개최하고 대표회장 황동익 목사를 선출했다. 대표회장 황동익 목사는 “미기총이 세대 간 소통과 화합,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 청소년 신앙 교육 강화의 비전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경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종명 목사(공동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민승기 목사(미기총 21대 회장), 성경봉독 김용현 목사(공동회장), 특송 김정선 선교사(극동방송 하늘편지 진행자), 설교 방지각 목사(미기총 6대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관계(마 22:35-4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방 목사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와 인간관계 회복이 중요하며, 기업과 교회 모두 좋은 인간관계가 성공과 부흥의 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필수이며, 사랑의 기술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25회 총회 이·취임예배 후 사진 촬영했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25회 총회 이·취임예배 대표회장 황동익 목사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된다. 전 미주가 하나됨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주님의 종이 되길 축원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대표회장 이취임식은 나성균 목사(제24대 대표회장)가 임인사를 했으며, 신임회장 선서, 안수 기도를 했으며, 황동익 목사가 취임사를 했다. 이어 최낙신 목사(제17대 대표회장)와 황의춘 목사(제14대 대표회장)가 권면했으며, 김광석 회장(뉴욕한인회장)가 축사했다.
 나성균 목사는 “2세대와의 관계 개선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황동익 목사님이 청소년 연합회로 잘 진행할 것을 말씀하시며 마음이 흐뭇하다”며 협력과 기도를 부탁했다. 이어 박희수 목사(제1대회장)가 신임 대표회장에게 취임패를, 황동익 목사가 나성균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한 이사장 김정훈 목사에게 취임패를, 새로운 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이·취임예배는 황동익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그린스보로 통일기도회를 마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세기총, 제45차 미국 그린스보로 통일기도회 개최

“통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7월 31일(수)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 위치한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한일철 목사)에서 ‘제45차 한반도 자유 평화통일 미국 그린스보로 기도회’를 개최했다. 그린스보로는 미국 내에서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의료가 발전한 도시로 5천여 명의 한인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제45차 한반도 자유 평화통일 그린스보로 기도회는 세기총 평화통일기도위원회가 주관하고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그동안의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회의 역사의 취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준비위원장 한일철 목사(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가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대회사로 통해 “에티오피아에서 가진 40차 기도회에는 150명 정도 참석했는데, 한국인 참석자들이 초청해 그분들에게 큰절했다”고 말하고 “참석하시는 물론 참석자들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며 당시를 회상하면서, 자신 이 섬기는 살맛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와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는 “형제 교회와 같다”라며, “오늘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상달 돼 한반도에 자유평화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
 또 전희수 목사(세기총 공동회장)의 대표기도, 육민호 목사(세기총 공동회장)의 성경봉독, 윤희집사(바리톤·NY Metropolitan Opera Singer)의 특별찬양이 이어졌으며 세기총 제5대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가 ‘작정된 통일(다니엘 5장 22-29절)’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다.
 황의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79년이 됐다”면서 “국제적 상황이 한국의 분단을 가져왔는데, 한국으로 인해 사회공산주의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황 목사는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어떻게 할지 기도하고 있다”면서 “세기총이 세계 각지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통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며 결론은 하나님이 통일하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 황진호 단장(테네, 미동북부 기독교음악부흥단장)의 찬양으로 봉헌했으며 김재학 목사(세기총 워싱턴DC 지회장)의 봉헌기도가 있었으며 김선호 목사(세기총 라틴 회장, 세기총 콜롬비아 지회장)의 인도로 특별기도가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는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 후 통일의 초래(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한 뒤 세기총 제7대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8월 7일(수) 오후 7시45분 영생장로교회에서 제8회 영생장학회 장학금 수여 예배가 열렸다.
 문희준 장로는 “올해 8회째를 맞아 약 240명의 학생들에게 총 40만 불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특히 장학금 수혜자였던 배성국 청년이 성장하여 매달 장학금을 하고 있어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앞으로도 이러한 선한 순환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학위원장 문희준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기도 조남수 장로, 성경봉독 최지영 성도, 설교 정승환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승환 목사는 “예수님은 세상의 악인들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해외 자녀들이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내지 않음을 꾸짖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생에 이르게 해야 한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참된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숙기자 영상취재)



제8회 영생장학회, 장학금 수여 예배 후 사진 촬영했다

피종진 목사 8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hk(T.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목) 오후 9:29특별기도대(1조~5조) 세종평화의동산 여름산성축복대성회를 위한 특별기도회 (강사 부원장 이성자 사모)
 2(금) 오전 사랑발 TV(이사장 권태일 목사) Interview Recording
 3(토) 오전 서울 열린교회(최선대 목사) 010-3298-8023
 5(월) 오후 NYSKC 한국광주교회 주최 : NYSKC World Mission 총체 피종진 목사(한국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뉴욕),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LA) 신대방 국제문화예수선교회(임영술 목사) 세종 평화의동산 여름산성축복대성회(원장 피종진 목사) 고양시 한빛교회(김선일 목사) 010-4737-0691 대구 글로벌 강은숙 신유재단(원장 강은숙 목사) 신대방 국제문화예수선교회(임영술 목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주최 : 나라사랑기도회(총체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010-2658-9006 서울 강남광문교회(황일 목사) 010-9260-1091 주최 : 지선협 광복절예배
 15(목) 오후 송추 반석교회(고관은 목사) 010-2391-3004
 16(금)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세계기독교교육신문방송TV)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명 목사) 010-8331-3431, 010-5603-4997
 18(주) 오후 서울 사랑발 7천기도클럽(이사장 권태일 목사) TV Interview Recording
 19(월) 오전 서울 사랑발선교회(권태일 목사) 010-5901-1277
 19(월) 오후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010-5603-4997
 19(월)~20(화)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254-0691
 21(수) 저녁 영덕 등대교회(이사라 목사) 010-2531-1564 주최 : 글로벌 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윤 목사) 010-2296-0675 의정부 호림산기독교원(원장 박호식목사, 총무 조광일목사) 010-3129-1114
 24(토) 오후 논산훈련소 3천명 진중세례교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원선교회(류성교 정로) 010-5265-1501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5(주) 저녁 Visiting International Mission Fields
 26(월)~30(금)

대한예수교총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07(세종) Fax. 02)410-7770

소망소사이어티 제3차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 개최

“소망크리스천초등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양성될 것”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 분자 장로)는 오는 9월 13일(금)부터 27일(금)까지 부에나 파크 AJL 갤러리(8600 Beach Blvd., Buena Park)에서 제3차 생명 살리기 소망 갤러리(공동 준비위원장 임규호, 최희선)를 개최한다. 지난 2014년에 이어 10년 만에 열리는 이 행사는 그동안 소망소사이어티에서 기부 받은 물품들과 한인들이 집에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을 비롯해 각종 미술품들을 도네이션 받아 전시회를 통해서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아프리카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에 '소망 크리스천 초등학교' 건립 기금으로 사용한다. 유분자 이사장은 “척박한 땅에 청소년들에게 복음과 꿈을 심어주는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번엔 소망 갤러리 행사를 하게 되었다”며 “이민 올 때 가지고 왔지만 보관하고 있는 소장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를 원하는 한인들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동안 아프리카 차드에 총 609개의 우물을 파고 초등학교를 9군데 설립했다. 초등학교는 박근선 선교사가 담당해서 5년간 운영한 뒤 자생력을 갖춘 후 현지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차드가 이

슬람이 뿌리내린 곳이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된 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웠다”며 “소망크리스천 초등학교는 차드 교육부에 기독교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이며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세부터 13세까지 교육하는 소망크리스천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현재 7만여 달러의 종자돈이 모금된 이 프로젝트의 목표 금액은 30만달러로 이번 소망 갤러리를 통해서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희선 공동 준비위원장(전 큐레이터)은 “현재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장품은 68점으로 장르 구분 없이 미술품을 기부 받고 있다”며 “소장품 구매를 원하는 한인들은 지금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망소사이어티가 보관하고 있는 소장품들은 도자기, 병풍, 붓글씨, 고서화, 수묵화 등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들이다. 한편, 이번 행사 외에도 소망소사이어티는 2024년 '소망갈라'를 오는 12월 8일 세리토스 퍼포밍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 문의: (562) 977-4580
(박준호 기자)



제79주년 8.15 광복절 감사예배 및 찬양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79주년 8.15 광복절 감사예배 및 찬양제

“독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

2024 남가주교계연합 제79주년 8.15 광복절 감사예배 및 찬양제가 11일(주일) 오후 5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교협회의회(회장 최영봉 목사), 옐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옐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기념식, 3부 찬양제로 진행됐다. 샘신 목사(남가주교회 수석부회장) 사회로 열린 예배는 기도 최학량 목사(이승만기념사업회장), 성경봉독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 설교 송정명 목사(남가주교회 교무), 헌금기도 권영신 장로(남가주교회 부회장), 특송 조준석 목사(남가주교회 음악부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송정명 목사는 “독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대한 민족을 독립시키셨다”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2차 대전 이후 독립이 된 나라 중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독립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전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 증거회장) 축도에 이어 이창남 목사(OC교회 수석부회장)사회로 열린 2부 기념식은 이사효 전 목사(LA연합감리교회)가 애국가와 미국국가를 불렀으며 최영봉 목사 환영사, 심상은 목사, 신용 집사, 클라리온(대한민국회기기념재단 이사장),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회 증거회장), 캐롤리(3.1여성동지회장)가 축하했으며 김준배 광복회 미서남부지회장이 만세삼창을 인도했다. 이어 열린 3부 찬양제는 무궁화합창단, LA연합감리교회&조이어서선교회합창단, 도산퀵렛, KCMC합창단, LA칸투스, 남가주장로성가단이 출연하여 찬양했으며 할렐루야를 이날 출연한 모든 이들이 합창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민경엽 목사(OC교회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복음연합감리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LA복음연합감리교회 부흥회

“말씀을 지킬 때 세상을 이기게 돼”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호영 목사) 부흥회가 8일(목)부터 11일(주일)까지 장요 나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김호영 목사 사회로 11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육정자 장로가 기도했으며 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어 장요나 선교사가 ‘인생을 승리하는 삶(요 16:32-3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요나 선교사는 베트남 선교현장에서 고육이 갖던 이야기를 전해주며 힘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장 목사는 “베트남에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전도도 많이 하여 부흥을 맞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시기질투로 감옥에 가게 되고 범정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했으며 나의 사역에 대한 문제점이 없음을 드러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신학생 860명이 배출되어 베트남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보게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서 시작 된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키를 주셨다. 그리고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담대하라고 하셨다. 말씀을 지키고 때 세상을 이기게 된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강순영 목사(전 자마대표)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광복 제79주년 8.15 기념 경축음악회에서 경신 남성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제1회 KCMUSA 설교 쇼츠 공모작 시상식 및 목회자를 위한 설교 쇼츠 영상 제작 세미나

제1회 KCMUSA 설교 쇼츠 공모작 시상식 및 목회자를 위한 설교 쇼츠 영상 제작 세미나가 오는 8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호영 목사 200 S Manhattan Pl, Los Angeles, LA, CA)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목회자들이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짧고 강력한 설교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하며 회비는 30달러(자료 및 점심과 다과 제공).
▲ 문의: (213)365-9188

여성 4인조 보컬그룹 씨씨 라이브 콘서트

무대 예술인 그룹 시션(SEASON THEARTE ARTIST GROUP)의 배우들로 구성된 여성 4인조 보컬그룹 SEASONSISTERS(씨씨)의 콘서트가 오는 24일(토) 오후 8시 St. Francis Korean Catholic Church(2040 Artesia Blvd, Torrance, CA 90504)에서 열린다. 티켓가격은 \$30(단체관람은 10% off)이다.
▲ 단체할인 및 문의: (231)500-5824

연합교회 담임목사 청빙

센터키 옥그로브와 테네시 클락스빌 경계선에 위치한 연합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는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한 자이다. 제출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추천서 2통(추천자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 목회비전 및 자기소개서(본인사진과 가족 사진)이며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제출처는 The United Church P.O Box 338, 1160 State Line, Oak Grove, KY 42262, 이메일 keejoung@gmail.com, cc ddangsoonyi7@gmail.com이며 제출마감일은 9월21일이다.
▲ 문의: (270)439-0833

다민족연합기도회 앞두고 중보기도팀 기도회

다민족연합기도회를 앞두고 중보기도팀연합기도회가 오는 8월 22일(목)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다민족연합기도운동(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이 주관하는 이날 기도회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 등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 문의: (310)995-3936, (323)578-7933



SF 갓스이미지가 굿네이버스 USA에 공연현금 전액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SF 갓스이미지, 창단 21주년 공연 공연현금 전액 굿네이버스 USA에 전달

젊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소년 문화예술 선교단체인 샌프란시스코 갓스이미지(단장 업영미 전도사)는 창단 21주년 공연에서 모금한 현금 3,667달러를 국제구호 NGO 굿네이버스 USA에 전달했다.

굿네이버스 USA의 김재학 본부장은 "Perfect Love(완전한 사랑)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21주년 공연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주신 갓스이미지 단원들과 교사 스태프들, 학부모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후원금은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제3세계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을 통해 가시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한국 최초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UN ECOSOC)로부터 NGO 최상위 지

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한 국제구호개발 NGO로, 굿주림 없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갓스이미지는 현재 2,000여 명의 단원들이 13개의 지부팀에서 활동 중이며, 샌프란시스코 갓스이미지는 2003년 창단하여 현재 80명의 단원이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과 댄스, 영성훈련을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갓스이미지는 미국 주류 사회와 한국 교민 사회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과 봉사를 통해 문화선교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공로로 류다미 학생을 포함한 총 14명의 단원이 2023년도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광복 제79주년 8.15 기념 경축음악회

광복 제79주년 8.15 기념 경축 음악회가 10일(토)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소프라노 김숙영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음악회는 테너 오위영, 오정록, 소프라노 김희원, 이영주, 바리톤 장상근 등이 출연해 귀에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 성가, 가곡 등을 불렀다. 또한 KCBC 선교

합창단, 경신 남성 합창단, 에버그린 여성 합창단도 출연하여 이날 음악회를 빛내주었다. 이날 음악회를 주최한 백지영 솔로몬대학교 총장은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해 미주 한인들에게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음악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스텝들이 제3차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 행사를 위해 모였다



충현선교교회 설립 39주년 부흥회에서 손경일 목사가 말씀선포후 찬양인도하고 있다

충현선교교회 설립 39주년 부흥회

“교회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설립 39주년 부흥회가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교회가 소망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부흥회는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강사로 초청 돼 말씀을 선포했다. 11일(주일) 오전 9시40분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2부 예배는 김종석 집사 기도,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안혜순, 크리스토퍼 안의 피아노 3중주 특주가 있었다. 이어 손경일 목사가 '교회는 믿음입니다(요 6:1-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손경일 목사는 "상식은 같은 시대에 사는 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에 몰 흐르듯 순리에 따라가는 것이다. 상식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 이상의 것을 언제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오늘 본문은 오병이여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는 오병이여로 수많은 사람들

을 먹이셨다"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교회가 상식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닌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상식은 이성적인 것이지만 부족함을 보게 한다. 오병이여는 당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부족한 음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여의 기적을 베푸셨다"라 말하며 "교회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한다. 상식으로 바라보면 부족하며 일이 안될 때가 너무나 많다. 예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교회는 믿음이다. 이성이 아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바라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충현선교교회를 39년동안 지켜주셨다. 이 교회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손경일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개강 앞두고 뜨거운 영성으로 강해진 신학생들

백석대 신대원, 12~14일 개강영성수련회 개최

신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성부터 단단히 다졌다. 백석대 신학대학원 재학생 전원인 2박 3일간 열린 영성수련회에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2024년 2학기 백석대 신대원 개강영성수련회가 12~14일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대학교 백석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일몰 후에도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백석대 신대원에 재학 중인 전도사들은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새벽부터 밤까지 집회와 특강, 개인 경건 프로그

램이 이어졌다. 13일 저녁 집회에서는 백석대 총장 장중현 목사가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신학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지식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며 "신학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상실한다. 신학 교육의 본질은 말씀과 영성으로 사명자를 배출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백석대 신대원은 신학적 지식 이상으로 영성과 경건을 강조하는 학풍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매 학기 개강 수련회뿐 아

니라 신입생들에게는 입학 전 2주간의 합숙 수련회를 제공한다. 백석대 신대원생이라면 졸업 전까지 다섯 차례 이상의 영성수련회에 참여하게 된다. 과인섭 백석대 신대원 교목본부장은 "우리 신대원은 다양한 경건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매 학기 진행되는 영성수련회가 대표적"이라며 "영성수련회는 학생인 동시에 사역자인 신대원생들이 영적 체합을 하고 사명자로서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백석대 신대원 영성수련회의 또 다른 특징은 신학자인 교수들도 빠짐없이 참석해 함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13일 저녁 집회에서는 70여명의 신대원 교수가 특별순서로 새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를 불러 제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신대원장 임석순 한국중앙교회 목사는 후배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임 목사는 "요즘 많은 신학생이 교회와 사역에 대해 낙심하는 것 같다"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지한 태도를 갖추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곳에 답이 있다"고 조언했다.



"10년 후 농어촌교회 문 닫을 위기... 그래도 떠날 수 없어"

예장통합 농어촌교회 및 목회자 실태조사 발표

농어촌목회자 절반 이상은 농어촌교회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과반수가 '현 목회자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납다름 소명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은 마을목회 등 농어촌교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재정지원과 전문 사역자 양성 등을 교단에 요청하고 있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농어촌교회발달위원회(위원장 김정은 목사) 총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산하 농어촌교회 목회자 18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2~3월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농어촌교회 현실을 파악해 총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교회 둘 중 하나(57.9%)는 출석 성인이 30명 미만이었다. 재정 규모가 4000만원이 넘지 않은 교회는 43.9%였으며 재정이 2000 만원을 넘지 않은 교회도 28.7%에 달했다. 농어촌교회 셋 중 하나는 자립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출석 교인 연령을 보면 농어촌지역 고령화가 여실히 드러난다. 출석 교인 중 60대 이상이 86.4%였으며 80대 이상도 19.3%나 됐다. 이에 따라 목회

자들도 10년 후 농어촌교회 전망을 '매우 흐림'으로 보고 있었다.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다'(44.4%) '교회 유지가 어려워 인근 교회와 통합하거나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11.4%)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한도희 쇄블리교육협동조합 연구소장은 "긍정과 회복, 선교와 확장의 마인드를 지닌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그런 중에도 목회자들은 마을목회(40.5%) 도시와 연계 및 협력(18.1%) 충실한 목회(16.7%) 지역복지센터 등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 마련(12.3%)을 통해 교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다수 목회자는 '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다'(51.4%) '과거에는 떠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아니다'(21.7%)라고 응답해 농어촌 목회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총회에는 '목회자 최저 생계비 지원'(52.0%) '농어촌교회 전문 사역자 양성 및 배치'(18.1%) '도시교회와 자매결연'(9.0%) 등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영웅의 길 안중근' 선보인 SDC 학생들, 나라사랑 정신 전하다

홀리씨즈교회, 'SDC 나라사랑 콘서트' 개최

홀리씨즈교회(서대천 목사)는 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최근 서울 광진구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SDC 나라사랑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콘서트는 국가보훈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1000여명이 참석했다.

홀리씨즈교회는 30년간 교육

계에서 헌신한 서대천 목사가 다음세대를 세계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교회학교 SDC인터내셔널스쿨(SDC)을 설립했다. SDC 초중고 학생 200여명이 오케스트라, 뮤지컬 '영웅의 길 안중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다.

서 목사는 개회사에서 "SDC 학생들은 매년 두 차례 나라사랑 콘서트에 참여하는데 기획과 연출 등 적극적으로 임한다"

며 "10대부터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로 성장해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이 될 미래를 꿈꾸고 있다. 오늘 참여한 모든 분이 우리나라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나라사랑 콘서트가 민간 차원의 보훈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가 열리기 전 열린 시상식에는 SDC 최고 영예상을 받은 서예화 학생 등 40여명 학생에게 장학금과 부상, 표창장이 수여됐다.

SDC 권진명 학생은 "현재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에는 선열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나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면서 순국선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SDC 강리언 학생도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면서 조국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다"며 "이 나라와 후손들을 지키신 선열들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회이대위원장협의회, 이단규정 간극 줄이기 위해 지침 마련해

천안장로교회서 전체 모임 열어

기독교 정통교리를 왜곡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 규정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밀착업이 본격화한다. 한국교회이대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성희찬 목사)는 성경·계시론 신론 인간론 등 조직신학 각론별 포괄적 적용 지침 사항을 공유 및 논의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이단·사이비 종교단체 현황을 짚으며 적극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13일 충남 천안 동남구 천안장로교회(김철수 목사)에서 '이단 대처를 위한 연합'을 주제로 전체 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진일교(기독교한국침례회) 유영권(예장합신) 성희찬(예장고신) 한선호(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익상(예수교대한성결교회) 황진석(백석대신) 이단대책위원장장 차재용(기독교대한감리회) 이

단파해예방센터장, 각 교단별 이대위 소속 목회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효율적으로 이단·사이비 종교를 대처하기 위해 '이단 규정 표준 기준안' 기틀을 마련해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국민일보 4월 12일 39면 참조). 기준안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기준으로 다른 교단의 장정과 헌법, 교리 등을 참고해 만든 초안이다. 다만 교단별 교리가 일부 달라 협의회 내에서는 과정 중에 있다. 이번 포괄적 적용 지침 사항을 마련하는 데는 정식으로 결의하기 이전 교단별 정서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다. 보다 근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교단별 간극을 좁힌다는 것이다.

지침 사항을 제안한 유영권 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단 규정

표준안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결정한 이단 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규정 기준을 일원화하지 않은 탓에 교단의 결정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은 한국교회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교단이 함께 공유하고 적용할 표준을 정하는 건 이단·사이비 대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침 사항에 따르면 '신앙의 표준이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뿐이며 성경 66권뿐이고 가감될 수 없다'(성경·계시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 즉, 신성의 단일성 안에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위격이 계신다'(신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나 죄는 없으시다...' (기독교) 등 조직신학 각론별의 사항을 제시한다.

이날 협의회는 이단·사이비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 등으로 규정된 다량부 기도교복음선교회(JMS)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인터넷음예로교회 구원파 등은 교주의 노쇠와 투옥, 독단적 경영과 운영으로 쇠퇴의 길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적극적 예방과 함께 공격적 대처를 한다면 이단들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족 항일운동 중심지 수원서... 통일 염원 품은 퍼포먼스

극동방송 전국 어린이 합창단, 광복 79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극동방송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올해 광복 79주년을 기념해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나라사랑 축제'를 펼쳤다. 이 행사는 다음 세대에 대해 통일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고 이 땅에 통일이 이뤄질 날 염원하며 2011년부터 매년 전국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열렸다. 올해는 수원에서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수원은 1919년 3월 1일 서울

과 함께 만세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 중 하나다. 2011년 해 보물로 지정된 방화수류정 부근에서 시작된 수원의 3·1운동은 종교인 농민 상인 학생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시민 저항운동이었다. 수원의 3·1운동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격렬하게 전개됐으며 전국적으로 3·1운동이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극동방송 전국 13개서

울 제주 대전 창원 목포 영동 포항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전남 동부 전북) 지사의 700여명의 어린이 합창단은 민족 항일운동 중심지인 수원에서 대한민국의 태동부터 일제의 침략, 6·25전쟁의 상처, 이를 극복한 국민의 위대한 힘 그리고 통일을 향한 희망까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특히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나라사랑을 악회'를 앞두고 그 감동을 수원 시민들에게 먼저 전하기 위한 '사전 공연(Pre-Concert)' 형식으로 진행됐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강환 목사는 "이 공연은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 수원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고취시키기 위해 준비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한 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림픽 브레이킹 사상 첫 금메달 필 워자드는 한인 목회자 자녀

기감 "교회가 함께 기뻐해"

올림픽 브레이킹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인 캐나다 국가대표 필 워자드(27·Phil Wizard·한국이름 빌립 김)의 부친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감병태 목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목사는 199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한 뒤 최근에는 치매로 투병 중

인 어머니의 간호를 위해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

브레이킹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사상 처음 공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브레이킹은 일명 비보잉이라고 불리는 댄스 스포츠다. 서핑,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등의 올림픽 종

목과 더불어 젊은이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올림픽에선 16명의 비보잉과 16명의 비걸이 일대일 솔로 배틀을 거쳐 메달 색깔을 가렸다.

브레이킹 선수들은 머리 어깨 등을 바닥에 대면서 다리를 풍차처럼 돌리는 윈드밀, 다리를 여섯 번 움직이는 식스스텝, 물구나무 같은 자세로 일정 시간 멈춰있는 프리즈 등을 조합하며 DJ의 비트에 맞춰 즉흥적 댄스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받아 승부를 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파리 라 콩코르드 경기장에서 열린 브레이킹 결선에선 뿔간쎄 비니를 쓴 필 워자드가 압도적 실력으로 개최국 프랑스의 강력한 우승 후보 대니 단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필 워자드는 파리 오벨리스크 앞에서 한국식 손가락 하트를 선보이며 "제가 그랬듯 여러분도 브레이킹과 사랑을 빠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선교의 창 (24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중동의 화약고(火藥庫)인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 땅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확산으로 비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Abdel Salam Ahmed Haniyeh)"가 7/31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최고 군사 사

문이다(George Gordon Byron 시인).

1. 팔레스타인 땅의 지명의 변천 과정

"팔레스타인"이란 지명은 필리스틴(Philistines)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필리스틴은 미케네 문명 당시 남부 그리스에서 이주했던 필리스티인(블레셋 사람)을 가리키던 명칭이다. 한편

진 디아스포라 신세가 되었다.

2. 팔레스타인 땅의 지정학적 의미

팔레스타인 땅은 일반적으로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와 그 인근 지역을 일컫는다. 이 땅은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고 유럽이 지중해를 통해 맞닿은 곳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팔레스타인 땅은

가야 하는 길목인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물이 넉넉하고 토지가 비옥한 곳은 구지 절대자를 의존하지 않아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천수답(天水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땅은 천수답에 해당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사람이나 땅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신학적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들 역사에서 여호와를 얼마나 의뢰하면 절대 신앙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행, 불행이 엇갈렸

3. 팔레스타인 땅의 지배구조 역사(wikipedia.org 참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발굴된 유적에 따르면 구석기 시대인 대략 60만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시대에는 카난인(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 시리아, 페니키아 및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성서에 따

~A.D.476년). 연이어서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 (330년~638년). 아랍 칼리파의 지배 (638년~1516년). 오스만 제국의 지배 (1516년~1920년), 영국의 지배 (1920년~1948년)로 이어졌다.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점점 악화되자 1947년 유엔은 주민 투표로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채택했다. 유대인들은 이 결의안을 환영했으나, 아랍인들은 반대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고, 다음 날 영국의 통치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상 열거한 역사처럼 팔레스타인 땅은 계속적으로 여러 제국들의 말발굽 아래서 짓밟혀 왔다. 오호통제(嗚呼痛哉)라!

4.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한 세기가 넘는 동안 그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공인받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고 피를 흘려왔다. 그간 두 공동체는 서로를

가의 길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산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지 못하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갈등과 고통의 시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라는 사명을 받았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거민이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다.

5. 맺음말

화약고(Powder Keg)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국경선 이해, 자원 획득, 민족적 갈등, 이념의 대결, 종교적 대립, 강대국의 간섭" 등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갈등과 대결이 끝이 없었던 것은 여기 언급한 요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좁은 땅, 한 지역 안에 모든 것이 다른 두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은 갈등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자기

지구촌의 80억 인류는 공동 운명체이다.
몸 한 곳이 아프면 통증이 전신으로 퍼지듯 인류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팔레스타인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사살했다고 공개했다. 이로써 사람들은 제5차 중동전이 발발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익히 아시듯, 팔레스타인 땅은 유사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는 긴장과 싸움으로 점철되어 왔다. 우리는 인체의 한 부위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다 해도 그 통증은 전신으로 퍼진 경험들을 갖고 있다. 인류는 미우나 고우나 한 운명 공동체이다. 따라서 기독교회는 지구촌의 화약고(火藥庫)인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온갖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얽히고설켜 실라레처럼 복잡한 팔레스타인 땅과 관계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기 때

성경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 이곳을 가나안(Ganaan)이라고 불렀다. 그 의미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성지, 약속의 땅"이다. 이는 다소 은유적 표현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20차례 언급되었다(민13:27, 수5:6). 팔레스타인 이름이 정착된 계기는 AD 70년 경부터이다. 당시 패권적 국가였던 로마제국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후 도시를 철저히 파괴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사방으로 흩트려트린 뒤,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말라는 의미로 저들이 원수로 여기던 블레셋족의 이름인 "팔레스타인"이란 지명을 쓰기 시작했다. 이로써 유대인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로마제국 전역으로 흩어

3개 대륙의 힘과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문명의 교차로로서,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의 교역로로서, 세력 간의 각축장(角逐場)으로서 그리고 종교의 발상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기서 의문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후손들을 왜 가나안(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셨는가?에 관한 것이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예멘 동산으로 추정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만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상류나 아니면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 더 타당하다. 더구나 팔레스타인 땅은 주변 강대국들이 반드시 지나

면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 한 후 B.C. 1406년에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 B.C. 1050년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은 B.C. 93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었다. B.C.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였고, B.C. 586년에는 남쪽의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에 멸망하였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일부는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었다. 그 후 페르시아의 지배(B.C. 538년~B.C. 330년) 기간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왔다. 헬레니즘 계열 왕국의 지배(B.C. 330년~B.C. 63년) 후 로마가 지배했다 (B.C. 27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만 집중하면서 분열을 더 심화시켜 왔다. 그 와중에 약육모두 고통, 슬픔, 분노, 트라우마,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역사학자 라시드 칼리드(Rashid Khalid)는 지금은 '1917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분쟁 과정' 속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분쟁의 땅과 세력에 대한 기독교회의 관점은 무엇인가? 복음주의 계열로서 대표되는 로잔 운동(Lausanne Movement)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화평케 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

논리와 감정으로 나아가면 해결점이 없다. 이제 UN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서로 윈윈(Win Win)하는 노선에서 거름마를 타 주어야 한다. 비록 골 깊은 상처와 미움이 극에 달한 다 해도 인류는 한때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틀 안에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동질성 없는 태도를 버리고 주체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42)를 통해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셨다. 天下无难事, 只怕有心人(하늘 아래 난제가 없나니 오직 마음먹기에 달려 있느니라.)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4강 나오미, 룯 그리고 보아스 (1)(룯기 1-4장)

룯기는 사사기 중간의 기록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는 사사기 마지막 문장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기록이 사사기 뒷부분의 고발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떠돌아 다녔다는 것은 이미 레위인의 성읍이 다 분배가 되어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흩어졌고(수 21:1-42) 레위인들은 그들의 직분에 집중하고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어야 했지만(민 18:24/ 신 12:12, 14:27,29)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룯기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홍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홍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 가나안은 물만 있으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아 홍년이 되면 가장 살기 어려운 땅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의 홍년의 원인은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인들이 말하는 '풍요의 신' 바알이 화가 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년의 원인을 바로 알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만 했지만 그들은 바알들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 하나님의 땅을 떠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홍년이 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합니다(룯 1:1,2). 산지인 이스라엘에서 내려다보니 모압 평지에는 홍년이 들지 않은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리를 지켜야 했지만 눈에 보이는데도 좋은 곳을 찾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모압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대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룯 1:3)로 시작하여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지 10년쯤에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으로 그들이 모압을 선택한 결과를 알려줍니다(룯 1:3-5).

돌아오려 하여

성경은 이제 주체를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바꾸어 과부만 3명이 남은 현실에서 하나

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어 홍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때 나오미가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룯 1:6).

나오미의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마지막까지 불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쪽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어가면서도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는 자존심으로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삿 9:53,54). 나오미도 가나안을 떠날 때는 분명 재산도 가지고 갔을 것이고(룯1:21) 성공을 꿈꾸었을 것이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다시 돌아온다 해도 '금의환향'하리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데 '죽어도 모압 땅에서 조용히 죽겠다'하

지 않고 다시 돌아오려했다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방향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고 세상의 것들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세상의 것들을 좇다가 끝이 나는 삶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것을 좇았는데,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맘껏 누릴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다 마침내 세상의 것을 다 잃고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의 것을 더 가지 위해 세상을 좇는 것보다 복인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미처럼 비참함의 현실에 자결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눅 15:17-20).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 가나안으로 역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오다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는 자들과 나를 선대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룯 1:8,9)고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두 며느리는 모두 소리를 높여 울며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룯 1:10)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리석은 술사 발람과 같이 그 마음에 모압에 있기를 원했던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던 룯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룯 1:14).

룯은 동서 오르바와 같이 돌아가라 권경하는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룯 1:16,17)라고 선언합니다. 룯 안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신앙부흥의 사모함 (시137:1-9) 찬 405장

시온의 회복은 그리스도인의 신앙부흥을 가리킵니다. 그 회복을 어떻게 추구할까요? 첫째, 부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1절에 "시온을 사모하며", 5절에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는 말은 모두 사모의 표현들입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림으로 임하는 신령한 평강을 누리는 삶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이상적 부흥이었습니다. 둘째, 뜨겁게 사모해야 합니다. 시인은 울음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시온의 노래가 조롱거리가 된 것을 탄식하며 주를 사모함이 없으면 저주 받기를 소원할 정도였습니다. 셋째, 결사적인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결사적으로 간구했습니다. 에돔과 바벨론의 멸망을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화 왕을 찬양하라 (시138:1-8) 찬 31장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해야 하나? 첫째, 주의 인자와 진실 때문입니다. 다윗은 감사하기를 "주의 영원한 인자와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사건마다 주의 인자와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를 응답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노래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 기도를 통해 자기 왕권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셋째,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열방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말씀 통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의 통치를 기뻐하며 더욱 순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139:1-10) 찬 383장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감찰하시나요? 첫째,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감찰하십니다. 6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나의 앉고 일어서며, 내 생각과 행위와 말을 익히 아시며 나의 전후를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설 때 회개하며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은밀한 장소를 감찰하십니다. 7-10절에 타락 지경 속에서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새벽에 은밀한 중에서도 주님은 계

셨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도망간 장소와 방황하는 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가 만난 흑암 속의 형편을 감찰하십니다. 11-12절의 흑암이란 성도가 당한 환난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답답한 건강과 가정 문제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목 인정받는 경건 (시139:13-24) 찬 342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 첫째, 경건의 정의. 13-18절에서 그는 자기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각 곧,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경건의 기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을 소유할 때 바로

되는 것입니다. 셋째, 경건의 능력. 경건할 때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은 경건이 회복될 때 체험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음을 목표로 지극히 작은 말씀 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며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사람이 됩니다.

금 악에서 구하소서 (시140:1-13) 찬 95장

신자의 싸움 대상인 원수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첫째, 원수는 음흉한 계계를 꾸미는데 부지런하고, 매일 울무를 놓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광명의 천사처럼 일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마귀가 교묘한 울무를 놓은 것을 보면 시험에 능수능란합니다. 둘째, 전쟁을 일으키는 데 숙달되어 있습니다. 6-8절에는 전쟁에 능하신 원수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악인의 소원이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무자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수는 온갖 감언이설로 무자비한 강포를 자행하는 교만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들을 패망케 하십니다.

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도 (시141:1-10) 찬 364장

본문에서 우리는 큰 환난에서 기도로 응답받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첫째, 간절해야 합니다. 1절에 "속히 임하소서", "내 음성엔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기도는 분향과 저녁제사 드리듯이 정미로웠습니다. 조건이 불리해도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둘째, 불 신앙적 시험을 이긴 기

도였습니다. 오랜 기도에는 마귀의 시험도 많았습니다. 그때 불평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만을 상대로 십자가 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 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63)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개신교(Protestant) 관점에서 바라본 레퀴엠(Requiem)에 대한 이해 (1)

"브람스(Johannes Brahms)의 독일 레퀴엠을 중심으로"

본지에서는 일반적인 레퀴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개신교(Protestant) 관점에서 바라본 레퀴엠(Requiem) - 브람스(Johannes Brahms)의 독일 레퀴엠(Ein Deutsches Requiem, Op 45)을 중심으로"의 글을 6회에 걸쳐서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개요 (Abstract)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그냥 애써 외면하고 싶은 사실이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거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을 간다는 말이 있다. 장례식을 가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 내야 할지 큰 교훈을 받게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음악을 통해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내면을 관철하며 오늘을 살을 정돈해 볼 수 있는 작품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축복으로 시작하며 전개해 가는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의 독일 레퀴엠(Ein Deutsches Requiem, Op 45)이다.

필자는 이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 준비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개신교(Protestant) 예배자들에게 레퀴엠 장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레퀴엠(Requiem)이라는 장르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지만 중세 후기에 다성음악으로 만들어지면서 교회 예전과 더불어 공연예술로 보급되어 대중화가 되었다. 레퀴엠은 죽은 자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드리는 음악 예배 형식의 미사이다.

하지만 브람스의 레퀴엠은 전통적인 이 관념을 깨고 산 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삶과 죽음을 질문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설의 축복,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브람스의 음악 선율은 그것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영성과 음악의 깊이가 심겨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신념의 본질이 무엇이든,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전통적인 레퀴엠과는 달리 산 자에게 위로를 주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그렇기에 나는 기꺼이 '독일인'을 생각하고 '인류의'라고 간단히 쓰고 싶다."

위 말은 브람스 자신이 독일 레퀴엠을 작곡하며 쓴 것으로 이 곡을 통해 그는 종교적 신념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주고 싶었음을 암시한다.

필자는 브람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원수가 되어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민족들에게 또 종교적 이해와 교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가도 똑같이 브람스의 선율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를 알리고 싶다.

서론 (Introduction)

중세 후기 이후부터 많은 작곡가들이 그 시대의 조류에 맞는 레퀴엠 장르를 발전시켜 왔다. 서로 다른 접근 방법들을 가지고 작곡을 하니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은 자들을 위해 쓴 종교적 드라마에 중심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죽은 자를 위한, 그리고 죽은 자에 관한 의식이다.

이에 반해 브람스가 쓴 (Johannes Brahms, 1833-1897) 독일 레퀴엠(Ein Deutsches Requiem, Op 45)은 본질적인 목적이 산 자들에게 있었다. 그가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물론 다른 작곡가들처럼 죽은 자들을 기억하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작품을 쓰게 되었다. 그는 여러 번의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배경을 거울삼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하게 되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브람스는 레퀴엠을 쓴 여느 작곡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고민과 연구를 한 것이었다. 그가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12년의 세월 동안 두 번의 시험 끝에 세 번째 최종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그 시간 동안 그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해 성경을 깊이 탐구하며 그에 따른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작곡자 자신이 성경에서 모든 가사를 뽑아내었다. 그리고 그 가사를 가지고 작곡하여 가사와 음악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작곡자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나타내었다.

필자는 이를 추적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인 레퀴엠에 대한 이해를 다루려고 한다. 어떻게 레퀴엠이라는 장르가 미사(예배)에 시작되었으며 그 안에 담긴 가사(Text)가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소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겨져서 즐겨 연주되고 있는 레퀴엠 장르의 대표되는 작곡가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작품 성향과 동기를 서술하려고 한다.

이어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작곡자 브람스의 삶을 개론하고 그가 레퀴엠을 쓰게 된 동기와 작품의 특징을 서술한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가사(Text)가 어떠한 신학적 사고와 배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사를 도출해 내었는지 알아내려 한다. 연결하여 작곡 구조(Structure)를 서술하고 이 작품이 개신교 예배음악에 미친 영향을 나누려고 한다. 어어 결론으로 레퀴엠은 개신교 교회음악에 적합한 장르인가? 라는 질문에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며 이야기를 종결하려 한다.

yoan@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이슬람의 땅' 아프리카 차드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소망 우물에 이어 '소망크리스천초등학교' 설립 기금마련 위해 소장품 기증받아 소망갤러리 운영

소망 우물로 차드에 생명살리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가 이번엔 '소망크리스천초등학교'를 세웁니다. 수도 은자메나에 차드의 내일을 짊어질 인재 양성을 위해 세워질 초등학교는 한 기독교재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와 향후 5년간 학교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소망갤러리'는 집에 잠들어 있는 도자기나 그림, 글씨, 고가구 등 소장품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사랑나눔행사'로, 수익금 전액은 학교 설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이와 함께 차드의 복음화, 빈곤퇴치를 위해 뜻있는 분들의 기부금도 환영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교육을 통한 아프리카의 복음화, 경제자립... 이것이 우리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이사장 유분자, 사무총장 신혜원



◆◆ 준비위원 ◆◆

공동 준비위원장: 임규호 (이사), 최희선 (전이사, 큐레이터)

- 준비위원: 정영길 목사 (명예이사)
 조앤리 (홍보대사), 최영희 (이사, 홍보대사), 황경 (홍보대사)
 나종성 (차드원정대 미디어담당), 김창곤 (LA지부장)
 이데보라 (봉사부장, 소중단 단장), 손영혜 (소중단 단원)
 박줄리 (교육부장), 이은희 (차드원정대 미디어담당)
 줄리엠티(GCF회장), 박경순(평생회원)
 박순빈(샌디에고지부장), 레베카박(샌디에고지부총무)
 김재희(샌디에고지부부장), 김영옥(샌디에고지부홍보교육팀장)
 강순희(샌디에고지부서기), 이에스터(LA지부홍보팀)
 찰스강(LA지부홍보팀), 천희정(LA지부홍보팀)
 OC 케어교실 봉사자, LA케어교실 봉사자, 소망중창단 단원 전원

소망 소사이어티 SOMANG SOCIETY

소장품 기증 문의 및 안내

562.977.4580

기증품 판매 일정

9월 13일(금) ~ 27일(금)
월~토 • 10:30AM~5:00PM
AJL갤러리 (8600 Beach Bl. #201 Buena Park)

2024 소망 갈라

12월 8일(일) 5:30~8:00PM
세리토스퍼포밍아트센터
(18000 Park Plaza Dr, Cerritos, CA 9070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 SOMANG SOCIETY

Well-Being • Well-Aging • Well-Dying

www.somangsociety.org | somang@somangsociety.org | 5836 Corporate Ave., Ste110 Cypress, CA 90630

8. 15 광복절과 건국절은 미국이 지원된 형제의 출산



김희창 박사

말씀새로운교회 담임목사, 한미동맹강화 재단총재, 미공화당평화안보위원장, 한미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미주총회장

역사는 그 정권의 강약에 의거 세팅되고 현대의 역사는 그 자료들이 숨겨질 수 없는 IT 혁명시기이기에 그 사실이 말하여 준다.

한국의 독립은 전적으로 미국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은 은총이었다. 이즈음에 일본은 아세아 쪽을 먹어 버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먹으려고 발악하였던 때였다. 이러한 발악을 막고 심판함으로 출발하게 한 것이 바로 맥아더 장군의 세계역사상 유례 없었던 사상 최초의 원자탄 투하 작전이었다. 이 원자탄의 투하가 일제의 발악을 막는 비장의 하늘 심판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제 천황의 신사참배 강요의 사악함이 멈추었을까?

이때 일본 쇼와 천황은 1943년 12월 31일에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거룩한 기독교인 한국성결교회에 교회 폐쇄령을 내렸다. 그 이유가 '재림주 천황이 이미 와 있는데 무슨 예수의 재림을 4대 교리로 강조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로인해 수백 개 교회에 대못을 교회입구

문에 박아 패쇄시키었고 주요 교역자들은 고문당하고 교인들은 해매게 되었다. 그 후에 계속 인간이 지닌 혈통의 맥을 끊어버리게 하는 참지개명을 하게 했고 전쟁물자 확보건으로 국가보석들과 구리 밥그릇까지 갈취하는 천하의 사단 짓을 자행했다. 한국인의 주권까지 완전 찬탈한 최악이었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을 착취한 흉악범이 일제이었다. 이런 사악한 집단이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진상이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다스릴 어떤 방법이 있었겠나? 마지막으로 미 영 소 강대국들이 모여서 1945년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을 하여 일제에 권고하였지만 최후의 발악 작전을 더 구상할 정도였고, 일본군이 정신무장으로 "일본군이 죽으면 야스쿠니신사에 간다"는 일본의 자살 비밀무기로 정신 무장시키며 결국 그 타협안을 묵살하였으니 그렇지 않아도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이 최후의 심판 작전을 쓸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결국 미국이 만지작거렸던 '맨하탄 프로젝트'에 당시 20억을 투자하였는데 그 결판을 내야한다는 심판으로 정계를 치닫게 하였다. 미국이 일본에 항복하라고 권하였으나 개무시하였다.

거기서 일본 교토로 신훈여행을 하였던 스티븐 국방장관의 의견이 개진되어서 그 문화도시를 빗겨가서 군창고와 해군 군항도시인 히로시마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별칭인 "리틀보이 원폭탄" 곧 우라늄탄을 1945년 8월 6일에 투하하게 되었다. 그래도 항복이 없자 3일 후에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와 해군군항 사세보시 옆인 나가사키에 플루토늄으로 만든 처칠의 별명인 "팻 맨 (fat man)으로 원폭탄"을 투하하여 세계 앞에 항복을 맥아더사령관이 받아내었다. 맥아더 장군은 철저하게 사건지마다 사악한 국가 지도자를 심판, 하나님의 대행자로 소명되었다.

미군이 필리핀 전투에서도 일본군에게 2만여 전사 및 더위에 순직 당하였었는데 맥아더가 1944년 10월 20일에 레

이테섬 팔로 상륙작전으로 복원하였다.

미국은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까지 기습당하였던 차에 더 이상 일본 천황에 대한 인내력 한계로 일제 땅 군사 도시 두 곳에 원자탄 투하로 세계역사의 흐름을 악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으로 보여주었다.

미국 맥아더 장군의 작전으로 말미암아 인도 필리핀 한국 등 참혹하게 당하고 있던 아세안 국가들은 독립의 기회를 받게 되었으니 이를 우리 한국은 해방되었다고 다시 빛을 받았다고 광복절로 기억하게 되었다.

이렇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한국에 두 기운이 감돌았는데 소련의 스탈린이 주 도하는 공산세력으로 남로당이 70프로이상 강세였고 미국이 지원하는 뒤 늦게 귀국한 이승만박사가 자유 민주주의 정부수립 가치를 들고 1948년 5월 10일에 동대문갑에 제헌 국회에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고, 5월 31일에 제1대 제헌의회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곧이어 7월 20일

에 국회에서 김구 안재홍 서재필 등과 겨루어 선거로 대통령으로 뽑히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건국하는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로서 이승만 박사는 상해임시정부의 첫 수반, 제헌국회 첫 수반, 대한민국제 대통령 되는 자유 대한민국제도, 자유 시장경제 제도의 역사의 출발자로 자리 잡았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인 1952년 8월 5일에 직접선거제도 개헌에 의거 뽑혔고 그 전동은 70여년이 되도록 지켜오게 되었다. 이때 상황은 김일성의 남침으로 3년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었다. 그는 1953년 정전시 즈음에 한미상호보호조약 체결로 한국을 보호해 하였다. 북한은 3대 세습을 거치면서 군사무기화 중심 정책으로 젊은 청년들이 10년간 의무화되어서 사회 적응할 기회를 놓쳐서 오늘날

한국에 60:1의 빈국으로 추락하였다. 한국은 이승만대통령이 기반 해 놓은 터전 위에 짧은 기간의 군사사무와 외국 과학기술 습득과 국민공교육, 조기유학 정착 등을 힘입어 한미동맹 기초 위에 경제 군사안보 문화 교육 체육 과학 기술이 기초를 다지었고, 박정희대통령의 산업화가 성공하여 오늘의 세계 GDP 14위, 세계국가경쟁력 6위 대국행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미국 선교사를 추천서 19통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의 유학과 미국과 연계된 애국 활동 생활과 이민자들 교육 보호 활동은 오늘의 한국의 광복과 국가 건국으로 이어져 형제 탄생과 비교할만한 것이었다. 그러한 초석을 놓은 신의 한수로서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이다.

베드로 진서 27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나무 수저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출신을 말할 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구분하면서 신분의 고하를 이야기해온다. 금수저란 금으로 만든 수저이기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흙수저라 함은 최하위층의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말하고 있다. 물론 은수저라 할 때는 그 둘

사이의 존재이니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중산층이 될까? 어쨌든 출신 성분을 그렇게 표현도 한단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우리 집 식탁에 나무 수저가 한 개 있었다. 알고 보니 큰딸이 친구에게서 얻어온 것이더라니 한식을 할 때는 꼭 그 나무 수저를 사용했다. 우리

는 스테인리스 수저를 쓰는데 말이다. 그러다 지난번 한국에 나갔을 때 어쩌다 마트에 들렀는데 나무 수저를 세트로 파는 게 아닌가. 반가운 마음에 식구 숫자대로 나무 수저를 사 왔고 지금껏 사용한다.

수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음식 먹는 스타일이 달라 일본인은 눈으로 먹는단다. 양은 적어도 예쁜 장식이 입맛을 당기

게 하고 한국과 이태리인은 배가 불러야 되고 인도인은 손으로 먹는다. 음식을 손으로 조물락거리며 손을 통해 맛을 느낀단다. 예뻐 동산에 수저가 있었겠는가? 손으로 열매를 따 먹고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과 함께 수저나 출신 성분을 말하기 전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축복 아니겠는가?

revpeterk@hotmail.com

이용규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Faith Theological Seminary 종교교육학 박사



60여년 목회, 2014년 소천 (LA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 시무)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8.15 해방 기념 설교"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제 38권에서 발췌

본문(Scripture) 이사야(Isaiah) 40:1-8
 제목(Topic)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위로
 (Comfort Received By God's People)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Method of God giving comfort]

- (1) 환난을 통해 위로하심 (Gives comfort through tribulation) 1,2
 (환난을 통해 위로하시는 이유) (Reason for giving comfort through tribulation)
 (A) 환난을 통해 애통케 함 (Makes us mourn through tribulation) 마(Mt) 5:4
 (B) 환난을 통해 비천케 함 (Makes us lowly through tribulation) 고후(2Co) 7:6
- (2) 구원을 통해 위로하심 (Gives comfort through salvation) 3-5
 (구원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법) (Method of preparing the path for salvation)
 (A) 골짜기와 산을 없애 함 (Takes away the valley and mountain) 약(Jas) 4:6
 (B) 굽고 험한 곳을 없애 함 (Takes away the crooked and dangerous place) 딤페(1Ti) 1:19
- (3) 말씀을 통해 위로하심 (Gives comfort through Scripture) 6-8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이유) (Reason for giving comfort through Scripture)
 (A) 육체와 영광은 잠간임 (Flesh and glory of man is temporary) 약(Jas) 1:11
 (B)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 (Scripture endures forever) 마(Mt) 5:18,19

(결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후(2Co) 1:4 (Conclusion: Comfort my people)

설교본문: 이사야 40:1-8

- 1)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 2)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람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찌니라
- 3)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 4)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 5) 여호와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 6) 말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같으니
- 7)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든지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LA 동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오]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설교집 신청 담당 :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ykleesermon@gmail.com

강해설교집 목록

- 제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 제2권 아가서 강해
-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 제5권 썩지 않는 면류관
- 제6권 스가랴서 강해설교
- 제7권 위기를 이기는 길
-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 제9권 롯기서 강해
- 제10권 새천년에 할 일
-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 제16권 진정한 평화
-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 제18권 십자가의 도
-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 제20권 인간의 복된 시령
-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 제23권 선한목자와 양
-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 제25권 피할수 없는 하나님
-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 제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 제32권 간추린 신학
-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 제34권 위대한 사랑
- 제35권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 제36권 큰 산이 평지가 되라
- 제37권 경건한 신앙생활
-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 제40권 감정의 영감
-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함께 보내드립니다.